

廣東네트워크(Canton-Networks)와 朝鮮華商 同順泰*

강진아**

머리말

- I. 동순태문서로 본 廣東네트워크
 - 1. 仁川과 廣東華商 同順泰
 - 2. 상업서간집으로 본 廣東네트워크
 - 3. 『同順泰寶號記』로 본 廣東네트워크
 - II. 廣東네트워크의 정치적 성격과 구성 원리
 - 1. 上海 廣肇幫과 朝鮮
 - 2. 廣東네트워크의 구성 원리 : 가족, 동향에서 동업자로
- 맺음말

요약

이 글은 규장각의 동순태문서와 새로 발굴된 서울대학교 고문헌자료실의 『同順泰往復文書』 및 『同順泰寶號記』를 이용하여, 한말 대표적인 화상이었던 同順泰의 교역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동순태 내부와 동아시아 교역네트워크는 廣東籍, 특히 廣肇幫이라는 특수 지역의 동향네트워

* 이 글은 2006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6-332-A00033)

** 경북대학교 사학과 조교수

투고일 2007.9.21.

심사일 2007.10.25.

심사완료일 2007.11.15.

크와 겹쳐있으며, 친인척관계를 매개로 관계망은 더욱 강고해 질 수 있었다. 한말 同順泰를 통해 복원한 廣東네트워크는 조선 華商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日本의 福建華商은 상업에 정치적인 개입이 들어갈 여지가 적었고 동향조직망 위에 상업적 기회를 찾아 뺏어나가는 것이었다. 반면, 동순태는 청조의 적극적인 대조선정책이 가시화되면서 인천에 상륙했고, 그 성장의 배경이 된 上海 同泰號와 그 네트워크는 조선정책을 실질적으로 지도하는 청조 洋務派 관료, 廣東출신의 買辦資本에까지 이어져 있었다. 1842년 南京條約으로 上海가 개항하면서 洋行의 본거지였던 광둥인들은 洋行의 上海 진출과 더불어 북상하였고, 1858년부터 일본 개항 이후는 일본으로 진출하였으며, 1882년 이후는 조선에도 진출했다. 동아시아 유통네트워크에서 광둥네트워크의 형성은 서구세력의 아시아 개항 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조선의 경우는 청조의 對조선정책이 양무파 관료와 그와 손잡은 광둥출신 매관들에 의해 주도된 결과, 朝鮮華商은 동아시아광둥네트워크 속에서도 특히 정치적 지원을 향유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官과도 밀착되었다. 그러한 점에서 조선의 광둥네트워크는 단순한 화교네트워크가 아니라, 정치적 네트워크이기도 했던 것이다.

주제어 : 同順泰, 朝鮮華商, 동아시아무역, 上海, 廣東네트워크

머리말

탈국가적 탈중심적 역사 연구가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각광받으면서 화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화교는 구미자본이 주도하는 자유무역질서에 수동적으로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근대에 적응하고 새롭게 전통적인 교역망을 발전시키는 아시아적 주체로서 재조명되고 있다. 古田和子, 籠谷直人, 濱下武志 등의 거시적 연구들은 이미 학계에도 많이 알려진 바이지만,¹⁾ 개별 국가나 개항장과 華商通商網과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대한 실증연구도 크게 진전되었다.²⁾ 이에 따라 개항기 조선 화교의 활동에 대해서도 뛰어난 연구가 배출되기 시작했으며,³⁾ 최근에는 日

-
- 1) 古田和子, 1992 「上海ネットワークの中の神戸」 『年報近代日本研究』 14; 古田和子, 1994 「アジアにおける交易交流のネットワーク」 平野健一郎編, 『地域システムと國際關係』(講座現代アジア 4) 東京大學出版會; 籠谷直人, 1990 「1880年代のアジアからの“衝擊”と日本の反応」 『歴史學研究』 608; 籠谷直人, 1991 「アジアからの“衝擊”と日本の近代」 『日本史研究』 344; 籠谷直人, 2000 『アジア國際通商秩序と近代日本』 名古屋大學出版會.
 - 2) 日本 長崎의 福建 籍貫 華商 泰益號에 관해서는 山岡由佳와 廖赤陽의 專著를 비롯해, 태익호의 최대 거래처였던 上海鼎記號와의 관계를 분석하여 근대제일화상의 상해무역을 분석한 공동연구가 출간되기도 하였다. 山岡由佳, 1995 『長崎華商經營の史的研究—近代中國商人の經營と帳簿—』 ミネルヴァ書房; 廖赤陽, 2000 『長崎華商と東アジア交易網の形成』 汲古書院; 和田正廣, 翁其銀共著, 2004 『上海鼎記號と長崎泰益號—近代在日華商の上海交易』 中國書店. 古田와 廖赤陽의 책에 대해서는 국내에도 동아시아 교역론 전체에 대한 제언을 담은 뛰어난 서평이 있다(하세봉, 2000 「“동아시아 교역권”론의 지평 확대」 『중국근현대사연구』 10).
 - 3) Kirk Wayne Larsen, 2000 “From Suzerainty to Commerce: Sino-Korean Economic And Business relations during the open port period 1876-1910”, June, Harvard University, Ph. D dissertation ; 石川亮太, 2000 「19世紀末東アジアにおける國際流通構造と朝鮮—海産物の生産・流通から—」 『史學雜誌』 109-2. 라센의 연구 및 조선화교연구의 현황에 대해서는 강진아, 2007 「이주와 유통으로 본 근현대 동아시아 경제사」 『역사비

本の 福建華商 泰益號 研究에 비견할 수 있는 朝鮮華商의 사례연구가 시작되었다. 한성, 인천, 전주 등 국내 각지에 지점을 두고 일본, 중국의 개항장과 무역업을 경영했던 同順泰號가 그것이다.

同順泰는 한말 조선에서 활동한 대표적인 화교회사로, 한국근대사에서는 1892년 청의 조선정부에 대한 차관 제공에 이름을 빌려 주어 유명하게 되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동순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뤄지게 된 것은 이 회사가 자산규모에서나 영향력에서 조선의 가장 대표적인 화교기업이기도 했지만, 서울대학교 奎章閣에 동순태의 거래 장부와 관련 문서들이 남아있기 때문이었다. 이 자료들은 『進口各貨艙口單』(8책, 1891년, 1895-1900년, 1903년, 청구기호 奎 27581), 『甲午年各準來貨置本單』(2책, 1894-1895년, 奎 27582), 『乙未來貨置本』(1책, 1895년, 奎 27583), 『同泰來信』(19책, 1889, 1894, 1903, 1905년, 奎 27584)으로 총 4종 30책에 이른다. 이 가운데 『進口各貨艙口單』, 『甲午年各準來貨置本單』, 『乙未來貨置本』 이상 3종은 동순태의 국내 지점 및 해외 거래처에서 漢城 同順泰本號로 부쳐온 물품발송장을 모은 자료이며, 가장 분량이 많은 『同泰來信』은 국내 지점 및 해외 거래처에서 한성 동순태본호의 譚傑生 앞으로 부친 상업 서신집이다.⁴⁾

서울대 규장각 소장의 동순태 자료를 부분적으로 인용한 것은 라센(Kirk Wayne Larsen)의 개항기 조선 화교연구이지만⁵⁾ 자료의 체계적 소개와 인용은 石川亮太에 의해 시작되었다.⁶⁾ 다만 지금까지의 연구는 19

평』 여름호 및 강진아, 2007 「동아시아경제사 연구의 미답지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 소장 朝鮮華商 同順泰號關係文書」 『동양사학연구』 100을 참조.

4) 규장각에는 동순태와 관련해서 이 4종 자료 이외에 동순태가 명의를 제공한 이른바 동순태차관의 계약서와 차관상환영수증 목록인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朝鮮)編 『同順泰號借款合同』(1책), 1893년, 청구기호 奎 26383 및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朝鮮)編 『同順泰第貳借銀按償收據』(1책), 1892-1893년, 청구기호 奎 26382 및 등 2종 2책의 자료가 소장되어 있다.

5) Kirk Wayne Larsen, *ibid.*, pp.246-247.

세기 말, 특히 1894년의 무역구조 해명에 주력하여, 同順泰의 역사나 변천에 관해서는 언급이 적다.⁷⁾ 한편 필자는 아시아 역내 자본의 이동에 따른 갈등 구조와 조선 화교자본의 성장과 한계를 설명하는데 관심을 두고, 주로 신문자료를 이용하여 처음으로 1880년대부터 1930년대에 이르는 同順泰의 전반적인 활동과 성쇠 과정을 추적했다. 하지만 논점이 華商과 현지 민족주의에 있었고, 장부자료를 직접 분석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해외 거래처, 聯戶, 分號(支店)의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등 오류가 적지 않았다.⁸⁾ 실제 규장각 자료와 신문자료만으로 19세기와 20세기에 걸친 인천에서 조선화상을 매개로 전개된 동아시아교역의 전모를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던 중 최근 서울대학교 고문헌자료실에 다량의 同順泰文書가 있음이 밝혀졌다. 새롭게 발굴된 자료는 상업서신집 『同順泰往復文書』(전 35권)와 1907년의 발송계산서 등 영수증을 모은 『同順泰寶號記』(1권)로, 전체 2종 36권이다. 현재 『동순태왕복문서』 중 31권부터 35권까지 다섯 권은 자료 보존상태가 좋지 않아 복사 및 관외대출이 금지되어 있다.⁹⁾ 여기에서는 우선 입수할 수 있었던 『동순태왕복문서』 일부(1

-
- 6) 石川亮太, 2004 「ソウル大學所藏『同泰來信』の性格と成立過程—近代朝鮮華僑研究の端緒として—」 『九州大學東洋史論集』 32.
- 7) 石川亮太, 2004 「開港後朝鮮における華商の貿易活動-1894年の清國米中繼貿易を通じて」 『中國近代化の動態構造』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石川亮太, 2005 「朝鮮開港後における華商の對上海貿易—同順泰資料を通じて—」 『東洋史研究』 63-4.
- 8) 강진아, 2004 「근대 동아시아의 조국적 자본의 성장과 한계 -제한화교기업 동순태(同順泰)(1874?-1937)의 사례-」 『경북사학』 27(강진아, 2006 「근대 동아시아의 조국적 자본의 성장과 한계-제한화교기업 同順泰(1874?-1937)의 사례-」 『근대전환기 동아시아 삼국과 한국-근대인식과 정책-』 성균관대학교 출판부에 轉載). 실제 국내 지점, 해외거래처와 동순태 한성 본호와의 관계는 아직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이 많다. 石川는 같은 해외거래처라도 상해 동태호의 경우 동순태에 자본을 투자한 주주[東家]일 가능성을 제기하였고(石川亮太, 2005, 앞의 논문, 840쪽), 仁川分號와 漢城本號와의 관계 역시 회계를 따로 하고 있어 경영의 독립성이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지 않다.
- 9)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 소장 자료에 대한 소개 및 『同順泰往復文書』 『同順泰寶號記』에 대한 해제와 목록은 강진아, 2007 「동아시아경제사 연구의 미답

권-30권)와 1907년의 『동순태보호기』를 참조로 하여, 石川의 규장각 자료 연구를 보충하고 인천을 중심으로 조선화상 동순태가 경영한 해외무역네트워크의 실체를 재구성해보겠다.

I. 동순태문서로 본 廣東네트워크

1. 仁川과 廣東華商 同順泰

1882년 10월 朝淸商民水陸通商章程이 체결된 이후, 개항장을 중심으로 무역 및 상업에 종사하는 중국인들이 적지 않게 등장하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각을 나타낸 華商이 譚傑生이 경영하는 同順泰였다. 조선의 화교는 山東省 출신이 많았지만, 초기에는 廣東省 출신도 적지 않았다. 다른 지역 화교와 마찬가지로 조선화교 역시 출신지에 따른 동향집단으로 조직되었는데, 크게 山東, 直隸(河北) 동향집단인 北幫, 광둥성 특히 廣肇地域 출신의 廣幫, 江南지역 출신의 南幫 세 그룹이 있었다. 특히 광방은 무역상이 많았다.¹⁰⁾ 거주지 역시 한성보다는 인천이 많았다. 1883년의

지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 소장 朝鮮華商 同順泰號關係文書, 『동양사학연구』 100 및 附表를 참조하기 바란다.

10) 이 글에서 廣東幫은 廣幫을 가리킨다. 廣東省은 다른 省과 달리, 廣州 및 珠江 델타지역, 汕頭를 중심으로 한 潮州地域, 客家地域, 海南島가 각각 廣幫(廣東幫), 潮州幫, 客家幫, 海南幫의 독자적인 동향조직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네 지역이 모두 언어, 문화권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廣東幫이라고 하면 행정구역 상으로 광둥성 출신의 이들 집단 모두가 아니라, 廣州 및 珠江 델타지역의 廣幫을 가리키는데, 그것은 廣州의 다른 이름이 廣東(Canton)인 것에 연유한다. 조선에 진출한 廣東省 출신 상인은 거의 廣州 및 珠江 델타지역 즉 廣幫이었다. 본문에서 경우에 따라 광동방, 광방을 혼용하지만 모두 廣州 및 珠江 델타지역 출신 동향집단임을 밝혀둔다.

중국 상인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대체로 한성 지역은 초기부터 산동방이 압도적인 우세였지만, 인천에서는 광동방이 더 많거나 산동방에 필적하는 세력을 유지하고 있다. 1884년 서울의 화상 총수 352명 중 광동籍 상인은 단 2명에 불과했으나, 같은 시기 인천의 중국 상인 총 235명 가운데 광동적 상인은 74명으로 산동성 93명을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¹¹⁾ 그 이유는 광동적 상인에는 대규모 무역업에 종사하는 대자본이 많아 무역항에 집중하고 있었고, 산동방은 광동 상인이 수입한 상품을 소매하는 소점포 내지 행상인이 많아 최종소비지인 서울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초기에는 인천뿐 아니라 부산, 원산 등 다른 무역항 2곳에서도 광동방이 우세를 보였다. 그러므로 광동방이 수적으로는 산동방보다 못하지만 경제적 영향력은 더욱 컸던 것이다.

다른 개항장과 비교해서도 인천은 화상의 영향력이 컸다. 1885년 8월 23일에서 12월말까지 조선 인천해관의 수출입총액은 782,694元, 輸出入稅收는 42,756元이었는데, 이 중 華商의 납세가 17,837元이나 차지했다. 1885년분 부산해관의 수출입세수 35,351.97元에서 화상의 납세가 1,543.7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초기부터 인천에서 화상은 두각을 나타냈다고 할 수 있다.¹²⁾ 인천은 무역을 주업으로 하는 광동화상들에게 상해와 가까운 대외무역항이라는 점과 최대 시장인 한성과의 근접성이라는 점에서 최적의 무대였다.¹³⁾

11) 서울의 2명은 점포를 가지지 않은 소상인이며, 廣幫 즉 廣東省 중 廣州와 그 부근 肇慶地域 출신의 廣肇幫이 아니라 海南島(당시 瓊州)와 潮州 출신이었다(高偉濃, 1988 『中朝通商初年到朝鮮的粵商』 『廣東史志』 1988年 第2期, 2쪽; 譚永盛, 1976 조선말기의 청국상인에 관한 연구-1882년부터 1885년까지』 단국대학교 사학과 석사논문, 21쪽) 인천지역 화상의 전반적인 활동 양상과 역사에 관해서는 김영신, 2005 『日帝時期 在韓華僑(1910-1931)-仁川地域 華僑를 중심으로』 『인천학연구』 4가 잘 정리하고 있다.

12)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編, 1972 『清季中日韓關係史料』 第4卷, 臺灣中央研究院, 2066-2067쪽.

동순태호를 개창한 담걸생(1853-1929)은 廣東省 高要縣 金利村 사람으로 1885년에 인천에 진출하여 무역업을 하다가, 이듬해 1886년 한성에 지점을 냈다.¹⁴⁾ 후에 한성이 동순태 本號 즉 본점이 되었지만, 동순태가

-
- 13) 부산과 대비되는 인천의 화상 강세라는 현상은 많은 학자들이 흥미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일찍이 동시대인의 눈에도 日商 우세, 輸入 강세, 對日무역 중심의 부산과 華商 우세, 輸入 강세, 對中무역 중심의 인천은 매우 대조적이었던 것 같다(相澤仁助, 1905 『韓國二大港實勢』 日韓昌文社.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문화예술과 역사자료관 역사문화연구실 역, 2006 『譯註 韓國二大港實勢』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으로 번역 출판). 인천의 對外貿易이나 華商에 관심을 가진 연구들은 빠짐없이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김영신, 2003 「개항기(1883-1910) 인천항의 대외교역과 화교의 역할」 『인천학연구』 2-1, 174-179쪽), 특히 라센은 개항기 조선의 대외무역에 대해 지역(region)적 특색을 키워드로 분석하면서 부산형과 인천형을 모델화하여 지경학적, 정치경제적 맥락에서 폭넓게 해석하였다(Kirk Wayne Larsen, 2000, "From Suzerainty to Commerce: Sino-Korean Economic And Business relations during the open port period 1876-1910", Harvard University, Ph. D dissertation, 제9장 참조).
- 14) 譚傑生의 조선 진출 시기에는 1874年說과 1885年說이 있다. 1874년은 일찍이 동순태호와 조선 화상에 관해 선구적인 연구를 한 譚永盛이 처음 제시하였다(譚永盛, 1976, 앞의 글, 17쪽. 담걸생의 아들 廷澤과 동향인 鄭家賢의 증언에 의함). 하지만 인천에 상주하는 화교가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적어도 1882년이라는 기존의 상식에 비추어 무리한 점이 없지 않았다. 이후 石川亮太는 臺灣中央研究院 近代史研究所 近代史檔案館所藏 『駐韓使館檔案』에서 同順泰가 訴訟관계로 在漢城清國總領事 앞으로 보낸 문서에 스스로 1885년에 처음 인천에 왔다고 밝힌 것을 찾아내, 1885년을 조선화상 동순태의 시작으로 보았다(石川亮太, 2007 「開港期漢城における朝鮮人、中國人間の商取引と紛争— 「駐韓使館檔案」を通じて」 『年報朝鮮學』 10, 13쪽 및 29쪽 주48. 원사료는 『駐韓使館檔案』 2-35-62-7의 인용임. 이에 따르면 동순태호 담걸생은 개성상인 孫景文 상점과 교역을 하다가, 이듬해 그의 알선으로 동생인 孫允弼 등이 운영하는 漢城棧內에 지점을 내고, 집세를 내지 않는 대신 모든 거래를 孫 등에게 위탁했다고 한다. 이후 1889년 말에 孫 등이 경영이 어려워져 도망하자 그 가옥을 동순태의 소유로 인수했다(앞의 글, 13쪽). 그런데 1937년 9월 同順泰가 조선에서 철수할 때 자료에 따르면 약 60년 전에 조선에 왔다고 적고 있다(朝鮮總督府警務局保安課 支那人引揚關係, 『治安狀況』第27報, 1937년9월17일 발행본). 60년이라는 수치는 1874년에 더 가까운데, 이 자료는 譚傑生의 아들로 同順泰의 조선 철수를 결정한 譚廷珉의 引揚申請書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1874년이라는 구체적인 숫자가 제시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1885년이라는 공식적 입장 이외에 가족들 사이에는 1874년이 조선 진출의 해로 구전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1880년대 무역업을 통해 대표적인 화교자본으로 성장한 만큼, 주력 업종인 무역업은 인천과 인천 동순태를 축으로 이뤄졌다. 일반적으로 청일전쟁 이후 화상 세력은 쇠퇴했다고 보지만, 동순태의 경우 청일전쟁과 한일합방 이후에도 성장을 거듭하여, 무역업에서 어음발행 등 금융업, 부동산 투자, 택시 등 운송업, 도소매업 등 다양한 방면으로 경영을 다각화하였다. 1920년대 초에는 일본인과 조선인을 누르고 서울지역 소득세 순위 1위를 기록하기도 하였다.¹⁵⁾ 담걸생은 경제적으로도 재한화교 사회의 정상에 섰지만, 화인단체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했다. 그는 廣東同鄉會館을 거점으로 동향회 회장을 오랫동안 역임했으며, 1920년대에도 朝鮮中華總務商會의 회장으로서 화교사회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다.¹⁶⁾

2. 상업서간집으로 본 廣東네트워크

여기에서는 기왕의 규장각 자료에 대한 石川의 연구를 참조하여, 새로 발굴된 『同順泰往復文書』와 비교함으로써 동순태의 거래 네트워크를 그려보겠다. 『同順泰往復文書』는 전체적으로 약 2,500여 건의 서신이 수록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입수 가능한 1권에서 30권까지의 서신만 계산하면 약 335건(수신 138건, 발신 197건)의 상업서신이 수록되어 있다.¹⁷⁾ 다음 【표 1】과 【표 2】는 同順泰文書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분포도이다.

15) 강진아, 2004 근대 동아시아의 초국적 자본의 성장과 한계 -재한화교기업 동순태(同順泰)(1874?-1937)의 사례-, 『경북사학』 27, 70-71쪽.

16) 楊昭全, 孫玉梅 著, 1991 『朝鮮華僑史』, 中國華僑出版公司, 107쪽; 朝鮮總督府, 1924 『朝鮮における支那人』, 51-52쪽.

17) 몇 개의 서신들은 앞장과 뒷장이 逸失되어 한 서신처럼 붙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전체적인 통독 후에야 판명될 수 있을 것 같다. 이하 본문과 각주에서 동순태문서를 인용한 날짜는 모두 음력이다.

【표 1】 『同泰來信』의 국내 발신자와 지역 분포

상호	인물
同順泰 仁川分號	何麗堂, 譚廷廣, 譚廷彰, 譚晴湖, 李泉亨, 李益卿, 何介眉, 李瑞雲, 譚廷銳
同順泰 全州分號	何挺生, 劉時高, 羅明階, [譚?]群枝, [?]常錯
同順泰 群山分號	李靜波
同順泰 漢城本號	李泉亨, 邵蘭圃, 譚象喬
仁川 怡生號	陳如三
仁川 義生盛	周夢龍, 周子齊
仁川 同意樓	인명 미상
元山 同豐泰	羅耀箴, 羅煜甫
朝鮮 清國領事館	黎子祥(元山領事), 唐恩桐(鎮南浦領事), 錢明訓(漢城總領事)
(지역불명) 巨昌泰	黃泰芬
기타 발신인물	古達庭, 李偉初, 譚秀枝(이상은 鎮南浦發 서신을 보낸 인물) 譚以莊, 周義, 何仲候, 周祺蘭, 梁根昭, 錢瑞甫, 黃泰芬, 梁○堂, [譚]廷瑚, [?]德謙, 米郭泉, 何錦垣, [?]永祥, 陳祺思

출전 : 石川亮太, 2004 「ソウル大學所藏『同泰來信』의 성격과 成立過程-近代朝鮮華僑研究의 端緒として-」 『九州大學東洋史論集』 32의 인물 분석 및 附表 『同泰來信』 所收書柬一覽을 참고하여 작성.

* []는 원문에는 없지만 인용자가 성명을 補正해 넣은 자이다. ?는 불확실한 글자. ()는 인용자의 설명이다.

* 譚傑生이 발신한 편지 중 수신자로 상기 인물 이외에 [譚]期○가 있다.

【표 2】 『同泰來信』, 『同順泰往復文書』의 국외 발신/수신자와 지역 분포

『同泰來信』 발신자	『同順泰往復文書』 발신자	『同順泰往復文書』 수신자
상호(발신 인물) 서간 수량	상호(발신 인물) 서간 수량	상호(발신 인물) 서간 수량
上海 同泰號(梁綸卿, 羅柱臣)32	同(梁綸卿, 羅柱臣)37	同(梁綸卿)43
香港 安和泰(羅子明)7	同(羅遜卿)6	同(羅遜卿, [?]載臣)20
神戶 祥隆號(陳達生)10	同(陳達生)32	同(陳達生)36
橫濱 福和號(譚玉階, 譚沛霖)5	同(譚玉階, 譚沛霖)14	同(譚沛霖, 譚玉階)21*
長崎 萬昌和(潘達初)2	同(潘達初)3	同(潘達初, [?]澤生)3
		廣州永安泰([?]煜田)5

출전 : 『同泰來信』 관련 사항은 【표 1】과 출전 같음. 『同順泰往復文書』는 필자 작성.

- * 『同泰來信』에는 譚傑生 발신 편지 39통이 있으나, 해외로 보낸 편지는 없다.
- * 담패림은 1894년 11월 20일에 광동성(粵)으로 귀향하여 1895년 2,3월에 橫濱로 돌아온다고 하고, 부재시 福和號의 각 업무를 玉塔(=階)叔에게 맡긴다고 하여, 두 사람은 淑姪 관계임을 알 수 있다(譚沛霖→譚傑生, 『同順泰往復文書』10권-7, 1894.11.19.寄).

성과 이름의 항렬, 편지에서 인척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위 인물들을 묶어보면, 우선 동순태 직원 중에는 譚氏 친인척으로 보이는 담씨 일족이 가장 많다. 譚傑生의 형제로 추측되는 인물로 譚晴湖(譚傑生을 三弟로 호칭), 譚以莊(담걸생을 三兄으로 호칭)이 있다. 담걸생이 官과의 공식적인 문서에서 사용하는 이름은 譚以時로 이것이 본명으로 보이는데, 항렬에 나타나는 돌림자에서도 譚以莊은 담걸생의 형제로 보인다¹⁸⁾. 친

18) 譚傑生→梁綸卿, 『同順泰往復文書』 21권-1, 1894.9.16.付(이하 『同順泰往復文書』의 인용은 중복될 경우 책명을 생략하고,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힌 뒤, 권수 및 날짜(付는 서신을 부친 날짜, 泐은 서신을 쓴 날짜)를 병기한다. 이 자료의 전체 목록과 상세한 서지사항은 앞의 강진아, 2007 「동아시아경제사 연구의 미답지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 소장 朝鮮華商 同順泰號關係文書」 『동양사학연구』 100의 附表를 참조. 이 외에도 많은 서신에서 譚傑生은 譚晴湖를 家兄으로 지칭하여 혈연관계가 확실시 된다. 한편 다른 편지에서, 梁은 譚에게 “동생은 어려서 경험이 적으니, 어려운 일은 모두 청호와 잘 상의해야 한다. 지금은 힘든 시기이므로 수족이 서로 의지하는 것이 상책이다(吾弟年輕, 未多經驗, 阻之事宜各事, 與晴湖細商爲要, 今是患之際, 以手足相依爲上也)”라고 하고 있어(梁綸卿→譚傑生, 5권-8, 1894.5.25.付), 형제 사이를 확인시켜준다. 아마 晴湖는 傑生과 마찬가지로 돌림자(以)를 공유하는 族名 이외의 別號로 추정된다. 譚晴湖와 譚以莊은 『淸季中日韓關係史料』 第4卷(臺灣中央研究院, 1972)의 1886년 인천지역 華商리스트에 譚傑生과 나란히 등장하며 세 명 모두 廣東省 高要縣人으로 기재되어 있다(위의 책, 2209-2210쪽). 같은 해 부산지역의 출입화상 명단에는 4월에 廣東人 譚以瑞가 부산에 왔고 廣東人 譚以莊가 부산을 떠나 인천으로 갔다는 기재가 있다(같은 책, 2222쪽). 이 譚以瑞는 龍山華商 명단에도 등장하는데 역시 廣東 高要縣人으로 되어 있다(같은 책, 2228쪽). 同順泰의 가족 경영을 감안하면 譚以瑞 역

형제는 아닌 것 같으나 담걸생과 같은 항렬의 인척으로 보이는 자로는 譚秀枝와 [譚]群枝가 등장한다. 譚秀枝는 담걸생을 宗兄으로 지칭하였고, [譚]群枝는 성을 밝히지 않았으나 秀枝와 같은 돌림자로 담씨로 추정하였다. 이외에 『同泰來信』에는 조카[侄]로 자칭하고 담걸생을 숙부[叔]로 지칭하는 그룹이 등장한다. 譚廷銳, 譚廷賡, 譚廷彰, [譚]廷珣, 譚傑生을 三叔으로 부르는 譚象喬를 제외하고, 나머지 인물들은 돌림자로 廷을 공유하고 있다. [譚]廷珣 역시 이름만 나타나지만 돌림자로 譚氏一族으로 추정하였다.¹⁹⁾

譚氏が 아닌 동순태 내부 인물 가운데 특히 李氏(李泉亨, 李益卿, 李瑞雲, 李靜波)와 何氏(何挺生, 何介眉, 何麗堂)가 많다. 소속 미상의 인물까지 합하면, 이씨 5명(+李偉初), 하씨 5명(+何仲候, 何錦垣)이다. 何挺生과 何介眉가 인척관계임은 확인되는데, 이상의 인물들이 친인척 관계로 얽혀있을 가능성도 향후 검토해야할 과제이다.

친인척 관계와 함께 중요한 것은 廣東이라는 동향관계였다. 동순태 仁川分號에서 일한 何麗堂은 廣東省 高要縣 출신이었고, 소속 미상의 周祺蘭 역시 廣東省 開平縣 출신이다. 이 점은 사료에 등장한 거래처에서도 나타나는데, 거래처 인물의 태반이 동순태 담걸생과 마찬가지로 광동성, 특히 珠江流域의 廣州, 肇慶地域 출신이라는 점이다. 담걸생 자신이 광동성 高要縣 출신이며, 국내 거래처인 인천 義生盛의 周夢龍은 광동성 개평현, 인천 怡生號 陳如三은 광동성 香山縣, 원산 同豐泰의 羅耀箴 역시 광동성 籍貫이다. 해외 거래처에서는 교역망을 둘러싸고 있는 동향네트워크가 더 잘 드러난다. 石川의 연구에 따르면, 日本 長崎 萬昌和의 潘達初

시 동순태 점원 중 한 사람일 가능성도 있으나, 가족경영의 범위와 실상은 발/수신인을 제외하고도 다양한 인물군이 등장하는 『同泰來信』 『同順泰往復文書』의 분석을 기다려야 할 것 같다.

19) 譚傑生의 아들 이름이 譚廷珣, 譚廷琳, 譚廷澤 등으로 역시 廷字가 돌림자인 것으로 보아, 譚傑生의 아래 세대의 친인척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는 광동성 南海縣 출신으로, 나가사키의 광동동향회관인 長崎合福堂廣東會所の 회원이었다. 반달초의 만창화는 중국 연구서에도 나가사키의 廣東籍 華商 8大家 중 하나로 꼽히고 있어 상당한 규모였음을 알 수 있다.²⁰⁾ 橫濱 福和號의 譚玉階는 籍貫은 확실하지 않으나 이 시기 요코하마 화상의 다수가 광동 적관이었고, 담걸생과의 서신에서 그를 宗兄으로 자신을 宗弟로 지칭하고 있어 동족 관계를 추측할 수 있다.²¹⁾ 神戶 祥隆號의 陳達生 역시 광동성 順德縣 출신으로, 고베 광동동향회관인 廣業公所 理事를 역임한 유력 광동 화상이었다.²²⁾

일본에 광동적 상인이 진출하게 된 계기는 일본의 개항에 따라 구미 자본이 진출하면서였다. 홍콩이 영국 식민지가 된 후, 구미상사가 홍콩, 마카오, 광주에 지부를 설치하면서 일본까지 지부를 확대하게 된다. 이때 홍콩, 마카오, 광주 지부의 광동인 매관, 고용인들이 일본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후에는 일본 개항장에 자신의 점포를 여는 광동상인도 점차 나타났다. 특히 1871년 청조와 일본이 『中日修好條規』를 체결한 후 그 수는 급증하였다. 일본의 개항 이후 교역항으로서 요코하마가 크게 발전하여 점차 나가사키를 대체해갔는데, 화교 역시 요코하마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게 되었다. 1880년 요코하마 화교는 2,172명으로, 일본화교총수의 60%를 차지했다. 광동인의 동향단체인 廣東公所도 차례로 설립되어, 나가사키(1872), 고베(1876), 오사카(1896년), 요코하마(1898년)가 줄을 이

20) 龔伯洪, 2003 『廣府華僑華人史』 廣東高等教育出版社, 241쪽.

21) 하지만 앞서 동순태 내부자 사이에 확실한 친인척 관계의 경우 상호 侄과 叔, 兄과 弟의 호칭이 확실하지만, 譚傑生이 譚沛霖에게 보낸 서신에는 그를 宗兄으로 자신을 宗弟로 겸칭하고 있다. 따라서 양자간은 항렬이 확실한 親族이라기보다는 鄉里를 같이 하는 同族 정도의 사업상 파트너로 추측된다.

22) 이상의 인물 정보는 石川亮太, 2004 『ソウル大學所藏『同泰來信』の性格と成立過程近代朝鮮華僑研究の端緒として』 『九州大學東洋史論集』 32 및 『清季中日韓關係史料』 第4卷(臺灣中央研究院, 1972)의 1885년과 1886년 조선 각 개항장 거류 중국 상인 성명 籍貫 數目を 참조하였다.

었다. 화교사회에서 광둥방의 영향력은 매우 커서, 1871년 橫濱中華會館 (1871)에서도 광둥 화교가 다수를 차지했고, 1874년 고베 화상 457명 중에 광둥인이 323명으로 70%를 차지했다. 이처럼 일본에서 광둥 화상의 주도적 지위는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까지 개항장을 막론하고 뚜렷했는데, 龔伯洪에 따르면 1920년대까지 臺灣人和 福建人の 진출로 수적 우위는 상실하지만, 여전히 영향력은 가장 컸다고 한다.²³⁾

日本の 거래처와 동순태의 관계는 어떠했을까? 『同順泰往復文書』를 일별하면 일본 거래처와의 교역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동순태의 최대 거래처인 上海 同泰號로의 송금이였다. 조선의 동순태는 상해 동태호에 대한 결제금을 조선의 日本 第一銀行을 통해 오사카로 송금하고 송금증서[滙單, 滙票]를 부치면, 고베 祥隆號가 제일은행 오사카지점에서 찾아다시 滙豐銀行(Hongkong & Shanghai Banking Cooperation) 오사카지점에서 滙豐電票의 형태로 상해 동태호에게 송금하였다. 조선에서 송금할 때는 元단위로, 일본에서 상해로 송금할 때는 兩(=匁)으로 환전하여 보냈다.²⁴⁾ 또 송금수수료를 항상 비교하여 때로는 요코하마 福和號로 송금한 뒤 역시 회풍은행을 통해 상해로 송금하기도 했다.²⁵⁾ 이 밖에도 홍콩이나 상해 등지의 화물을 인천으로 轉送하는 것, 반대로 조선 화물을 홍콩, 상해 등지로 수출할 때 轉送하는 등, 직접 교역 이상으로 물류에 있어서 일본 거래처의 역할은 컸다. 특히 1894년 청일전쟁 기간에는 조선과 중국 간의 교통이 원활하지 않았으므로 중개처로서 일본 거래처의 역할은 더욱 중요했다.²⁶⁾ 이 밖에도 일본의 거래처와 동순태는 상업서신을 보낼 때

23) 龔伯洪, 2003 『廣府華僑華人史』 廣東高等教育出版社, 166쪽.
 24) 陳達生→譚傑生, 『同順泰往復文書』 1권-3, 1894.1.2; 1권-13, 1894.1.28; 1권-16, 1894.2.3. 및 譚傑生→陳達生, 30권-5, 1895.2.29 등, 그 수는 많다.
 25) 譚傑生→譚沛霖 『同順泰往復文書』 13권-4, 1894.1.9. 및 譚沛霖→譚傑生, 1권-5, 1894.2.7接; 譚沛霖→譚傑生, 10권-7, 1894.11.19.寄; 制弟 譚傑生 頓→譚沛霖, 24권-8, 1894.11.11. 등 그 수는 많다.

마다 주요 수출입 물품, 금은의 시세를 확인하고, 동아시아 각 국 개항장의 가격차를 비교하여 사업에 참고하였다.²⁷⁾

3. 『同順泰寶號記』로 본 廣東네트워크

상업서간집인 두 자료 이외에도 동순태문서에는 발송장을 비롯한 각종 영수증 모음집이 있다. 규장각 자료인 『進口各貨艙口單』 『甲午年各準來貨置本單』 『乙未來貨置本』의 3종과 서울대 고문헌자료실의 『同順泰寶號記』 1종이 이에 속한다. 우선 규장각 자료에서 한 번 이상 등장한 해외의 거래처는 『同泰來信』의 등장 상호보다 더 많다. 香港 安和泰(총 44건), 香港 茂和祥(2건), 香港 萬祥堂(2건), 廣州 永安泰(6건), 廣州 瑞草堂(2건), 上海 同泰號(170건), 上海 老悅坐興記(1건), 上海 華彰號(1건), 鎮江 發記(64건), 鎮江 陳恒順號(1건),²⁸⁾ 煙臺 萬慶源(2건), 煙臺 履泰謙(4건), 長崎 萬昌和(4건), 神戶 祥隆號(17건), 橫濱 福和號(2건)로 香港 3개, 廣州 2개, 上海 3개, 鎮江 2개, 煙臺 2개로 중국과 홍콩이 12개, 일본이 나가사키와 고베가 각각 1곳으로 2곳, 합계 14개의 거래처가 등장한다. 이중 상당수는 장부가 커버하는 8개 년²⁹⁾ 중에 한두 번 등장하는 데 그치고 있는데, 3년

26) 1895년 2월에 同順泰는 祥隆號 陳達生을 통해 白蔘鬚 6箱을 香港 安和泰에게 轉送하였다(譚傑生→陳達生, 30권-5, 1895.2.29).

27) 이러한 정보망은 淸日戰爭기와 같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도 광범위하게 작동하였는데 교역망과 정보망의 구체적인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별고에서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28) 石川亮太, 2005 「朝鮮開港後における華商の對上海貿易—同順泰資料を通じて—」 『東洋史研究』 63-4, 25쪽 표2에서 불명 상호로 분류한 陳恒額號는 『同順泰寶號記』 내 문서 No.5의 발신자인 陳恒順號로 보인다.

29) 규장각 자료 장부 3종에서 거래가 확인되는 해는 1888, 1891, 1894, 1895, 1893, 1897, 1898, 1899년이다. 각 해의 거래 분포는 石川亮太, 2005 위의 글, 25쪽의 표2가 자세하므로 참조.

이상 등장한 상점은 香港 安和泰, 上海 同泰號 鎮江 發記, 고베 祥隆號 이상 4곳이다.

종합적으로 판단하자면 동순태의 교역범위는 중국과 일본에 걸쳐있지만, 중국과 홍콩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제1 교역상대는 상해 同泰號였고, 그 다음이 鎮江 發記, 세 번째가 홍콩의 安和泰이다. 이 세 거래처만으로 전체 거래액의 86%를 차지한다. 그런데 鎮江 發記는 비단전문상점으로 이 영수증은 모두 동태호가 동순태의 주문대로 매입하여 인천으로 보내면서, 발송장의 금액과 확인 대조하도록 보낸 영수증이다. 홍콩 안화태 역시 홍콩에서 인천까지 직항로가 없으므로 상해로 보내서 인천으로 전송했기 때문에 결국 同順泰의 교역 대부분은 上海 同泰號의 손을 거쳤음을 알 수 있다. 시대순으로 보면 어떠한가. 규장각 자료 중 가장 늦은 연도인 1899년의 내역을 보면,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상해 동태호가 29건으로 1위, 鎮江 發記가 12건으로 2위인 외에, 홍콩 安和泰(2건), 廣州 瑞草堂(2건), 上海 老悅坐興記(1건), 上海 華彰號(1건), 鎮江 陳恒順號(1건)으로 초기에 빈번히 보였던 일본 상점의 거래문서는 보이지 않고, 상해와의 거래가 두터워지고 있었다. 1907년의 거래를 기록한 『同順泰寶號記』에서는 그러한 경향이 더욱 뚜렷해진다.

다음은 『동순태보호기』에 나타난 해외 거래처와 그 거래액이다.³⁰⁾

30) 이 자료는 同順泰가 1907년 1월 28일부터 12월 19일까지 거의 1년 간 수령한 발송장 및 기타 영수증을 모은 것이다. 이중 轄은 화물의 발송장이고, 次는 상해에서 판매되는 彩票 즉 복권의 발송장이다. 1년간 화물은 21방까지, 복권은 26차까지 상해 동태호에서 동순태로 보내졌다. 수신자는 漢城同順泰寶號로 되어 있지만, 모든 화물은 인천에서 하역하였다. 규장각 자료와 비교할 때 새로운 점이 바로 복권 사업인데, 지면상 『同順泰寶號記』에서 나타난 對中交易에 대해서는 별고에서 곧 상세히 분석하도록 하겠다. 여기에서는 광동네트워크의 변천을 알아보기 위해 등장하는 거래처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문서 첫 페이지에 安和泰에서 보낸 붉은 색 영수증의 일부가 붙어있는데, 금액과 거래 내용이 전혀 없이 안화태의 사인 부분만 남아있어 件數에서 제외하였다.

【표 3】 『同順泰實號記』 각 문서 내역(1907년)

	발행인→영수인	날짜	거래액	연번
1	同泰號→同順泰	1.28.	534.503	第2次
2	同泰號→同順泰	2.3.	956.547	第2幫
3	同泰號→同順泰	2.16.	260.259	第3次
4	同泰號→同順泰	2.12.	1,990.332	第3幫
5	陳恒順號→同順泰	2.10.	第3幫 鎮江綢 原單	
6	同泰號→同順泰	2.27.	409.486	第4次
7	同泰號→同順泰	2.30.	2,072.944	第4幫
8	誦芬堂→[同泰號]	3.13.	第5幫 六神丸 原單	
9	生源→聯發寶行	2.19.	第4幫 糖姜 原單	
10	同泰號→同順泰	3.15.	132.072	第5次
11	同泰號→同順泰	3.15.	1,615.086	第5幫
12	生源→聯發寶行	2.24.	第5幫 糖姜 原單	
13	同泰號→同順泰	3.28.	654.89	第6次
14	同泰號→同順泰	4.6.	2,187.782	第6幫
15	同泰號→同順泰	4.20.	2,892.514	第7幫
16	安和泰→同順泰	3.29.	1,545.02元	2幫
17	同泰號→同順泰	4.24.	647.233	第7次
18	同泰號→同順泰	4.28.	786.899	第8幫
19	同泰號→同順泰	5.21.	第8幫 발송장 보충	
20	瑞草堂→同順泰	4.9.	98.748	
21	同泰號→同順泰	5.5.	발송장 별도 기재	
22	同泰號→同順泰	5.3.	728.388	第9幫
23	同泰號→同順泰	5.17.	685.078	第10幫
24	同泰號→同順泰	5.22.	642.291	第8次
25	同泰號→同順泰	6.3.	209.803	第9次
26	同泰號→同順泰	6. ?	216.881	第10次
27	同泰號→同順泰	6.18.	902.122	第11幫
28	同泰號→同順泰	6.21.	219.383	第11次
29	同泰號→同順泰	6.28.	203.378	第12次
30	同泰號→同順泰	7.8.	156.965	第13次
31	同泰號→同順泰	7.22.	449.37	第14次
32	同泰號→同順泰	7.29.	471.575	第15次
33	同泰號→同順泰	8.5.	762.543	第12幫
34	同泰號→同順泰	8.23.	271.658	第16次
35	同泰號→同順泰	8.26.	567.669	第13幫
36	安和泰→同順泰	8.9.	645.05元	3幫
37	同泰號→同順泰	9.1.	123.066	第17次
38	同泰號→同順泰	9.9.	433.618	第14幫
39	同泰號→同順泰	9.13.	299.413	第15幫

40	同泰號→同順泰	9.20.	693.106	第18次
41	同泰號→同順泰	9.27.	166.282	第19次
42	同泰號→同順泰	9.27.	961.963	第16幫
43	同泰號→同順泰	10.11.	235.638	第17幫
44	安和泰→同順泰	10.1.	411.1元	4幫
45	同泰號→同順泰	10.21.	469.704	第20次
46	同泰號→同順泰	10.24.	167.325	第21次
47	同泰號→同順泰	10.27.	242.601	第18幫
48	同泰號→同順泰	11.9.	144.57	第22次
49	同泰號→同順泰	11.16.	699.785	第19幫
50	同泰號→同順泰	11.17.	716.686	第23次
51	同泰號→同順泰	11.30.	1,066.445	第20幫
52	同泰號→同順泰	11.30.	第20幫 발송장 보충	
53	陳廣順→同泰號	11.2.	第20幫 磁器 原單	
54	同泰號→同順泰	11.23.	166.353	第24次
55	同泰號→同順泰	12.4.	20.692	第25次
56	同泰號→同順泰	12.18.	342.897	第26次
57	同泰號→同順泰	12.19.	836.517	第21幫
58	正恒隆→同順泰	12.17.	105.78元	
59	胡開文墨→同泰號	12.2.	第21幫 尺 原單	
60	潤寶齋→同泰號	?	17.545元	
61	安和泰→同順泰	3.29.	1,633.12元	2幫
62	協和號→同順泰	?	在粵東報關底單	

출처 : 『同順泰寶號記』서울대학교 고문헌자료실 소장 자료, 1907.

- * 거래액 단위는 上海98規銀兩이다. 元인 경우만 기입했다. 날짜는 음력이다.
- * 첫 장에 安和泰 날인만 남아있는 영수증 과본이 있는데, 이는 제외한다.
- * 16번은 홍콩 安和泰가 同順泰로 보내는 발송장으로, 15번 同泰號 발송장(同泰號→同順泰 第7幫(4.20.))에 포함된 한약재 발송장이다. 안화태가 홍콩에서 상해로 보내면 동순태가 자신의 화물과 함께 인천으로 보냈다. 동순태 제7방의 물품내역에는 “港來轉船”으로 표기하고, 단가, 액수는 기재하지 않고 총액에도 합산하지 않았다. 항구에서 轉送되므로 포장박스가 하나로 독립되어 있다. 16번 계산이 틀려 재청구한 것이 61번이다.
- * 19번은 제8방에 양품에 섞어 넣은 烟仔樣 가격에 대한 내역서. 1.41匁의 소액 거래인데, 4월 28일 발송한 후 한참 지난 5월 21일에 다시 가격내역을 자세히 보충 설명한 내역서를 同泰號가 同順泰로 보낸 것이다.

- * 36번, 44번은 각각 35번 第13幫, 43번 第17幫(10.11.)에 포함된 안화태 발송장이다. 기타 사항은 16번과 같다.
- * 20번은 廣州 瑞草堂 발송장으로 18번 발송장(同泰號→同順泰 第8幫(4.28.))에 포함된 戒煙丸의 발송장이다.

일본과의 거래를 증명하는 영수증은 우선 보이지 않는다. 同順泰와 安和泰의 발송장을 제외하면 8개의 상호가 나타나는데, 이 중 陳恒順號와 瑞草堂는 각각 1회와 2회씩 규장각 자료에 등장했던 상점이다. 이 두 상점은 모두 동순태 앞으로 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어 동순태와의 교역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만 廣州 瑞草堂는 홍콩 소재 安和泰와 마찬가지로 운송만 상해로 화물을 보내 동태호에게 인천으로 송부하도록 맡기고, 그 대금은 동태호 발송장에 포함하지 않아서 정산은 동순태와 직접 하고 있는 듯 하다. 하지만 상해와 가까운 鎮江에 위치하고 있는 陳恒順號의 경우, 동태호가 물품의 운송뿐 아니라 대금 역시 第3幫 발송장 총액에 포함시켜 일괄 청구하고 있어 정산도 대리하고 있었던 것 같다.

『동순태보호기』에서 처음 등장한 상점은 모두 8개로, 8, 53, 58, 59, 60, 62번째 영수증에 영수증 발행자로 등장하는 6개 상호와, 9번과 12번에 발행자와 수령자로 등장한 2개 상호이다. 이들 상점도 정보가 부족하지만 영수증에 찍은 인장을 통해 소재지를 추적할 수 있다.

먼저 한 번씩 등장한 6개 상호를 보자. 마지막 62번째 영수증은 세관의 납세 영수증인데 協和號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지만 “粵東報關”이란 문구로 볼 때 廣州의 상점으로 추정된다. 59번째 등장한 영수증(1907년 12월 2일 발행)은 第21幫 안에 포함된 붓[橫掃干軍筆] 銅錢 6400文(=4.48兩)에 대해 발행한 것으로, 영수증에는 墨筆商店의 인장이 찍혀있다. 인쇄가 흐리지만 대체로 “上海分設/四馬路口南首大街/休城胡開文墨發票”라

고 읽을 수 있다. 여기의 四馬路는 상해 개항 전후에 현재의 福州路를 부르던 속칭이다. 58번째 영수증의 正恒隆의 인장에는 “上洋拋球場/正恒隆單”라고 찍혀있는데 拋球場이란 1850년에 건설된 上海 南京路의 제1경마장을 부르는 말이다. 上洋은 상해양행을 가리키는데 53번째의 도자기, 쟁반 취급 상점 역시 영수증 인장으로 보아(“上洋/新北門內盧家街口”) 상해 소재의 상점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영수증의 結單 부분의 인장은 흐려서 첫 글자인 “陳”이외에는 읽을 수 없으나 물건의 내역을 보건데, 第20號 화물 중에 淡水船 賬房에게 부탁해서 가져갔던 磁器物品의 原單이다. 51번 제20방 발송장 안에 일반 화물과 구분하여 적어놓았는데, 52번 문서는 동태호가 이 화물에 대해서 따로 동순태에게 발송한 발송장이며 원단이 53번 문서이다. 51번 발송장에 “陳廣順磁器一單”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53번 원단을 발행한 상점의 이름은 陳廣順이고 상해 소재의 자기 전문점으로 추정할 수 있다.

8번째 한약방은 문서 앞에 誦芬堂이란 인장이 있고 結單과 인장이 찍히는 자리에 다시 인장이 찍혀있는데, 희미해서 판독이 어려운 자를 빼면 “上洋新北門/興聖街南口/雷○上發○(○는 판독 불가능한 글자-인용자)”라고 읽힌다. 興聖街는 옛 프랑스조계에 있던 거리로, 지금의 上海 新北門 永勝路이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誦芬堂은 雷允上이 세운 雷誦芬堂인 듯하다. 이 영수증 한 쪽에는 “本堂向內蘇州/穿珠巷內天庫/前周王廟街口”라는 인장도 찍혀있다. 원래 雷誦芬堂은 淸 雍正12年(1734년)에 雷大升이 蘇州 穿珠巷 天庫 앞에 약방을 낸 것이 시초였다. 雷允上은 의술로 유명해 이 약방은 강남 일대에 이름이 있었는데, 太平天國의 난(1850-1864) 때 태평천국군의 북진으로 자손들이 상해로 거점을 옮겼던 것이다. 雷誦芬堂 상해점은 1861년에 상해 프랑스조계 興聖街에 들어섰다. 당시 상해 4대 한약방 중 하나였던 큰 상점이다.³¹⁾

이상을 살펴보면, 62번째의 남세 영수증을 제외하고 세 상점 발행 영

수증은 수신자가 동순태가 아니라 모두 同泰號, 同泰寶號인 것으로 보아, 소액 거래에 대해 상해 동태호가 가까운 곳의 전문 상점에서 구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한편 9번과 12번은 발행자가 “汕頭/生源”이고 수령자가 “聯發寶行”으로 수령자가 동태호나 동순태가 아닌 특이한 영수증이다. 각각 제4방과 제5방에 포함된 糖姜의 原單이다. 정황에 비추어 추론하자면, 糖類는 廣東省 潮汕(潮州와 汕頭地域)의 특산물이었으므로 同泰號가 聯發寶行이란 상점에 부탁하여 汕頭 生源號에 糖姜을 주문 구입해서 同順泰에게 부친 것이 아닌가 한다.³²⁾

이상을 참조하여 『동순태보호기』가 기록한 1907년을 개괄해보면 일본과의 관계는 적어도 화물 거래는 보이지 않았다. 대신 중국과 홍콩 특히 上海 同泰號와의 교역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상해 동태호 이외에 유의미한 교역지역은 홍콩과 廣州, 즉 廣東네트워크의 고향이었다.³³⁾

-
- 31) 尙耀, 2006 「老字號“雷允上” 今昔」 『中國藥業』 5, 11쪽. 지금도 雷允上藥店이란 이름으로 중국 한약업계의 중요 기업이다. 이 상점에서 同泰號에 판 것은 六神丸이란 조제 한약으로, 上海 정기호가 나가사키 태익호에 대리 구매하여 보낸 한약 목록 중에도 있었다(和田正廣, 翁其銀共著, 2004 『上海鼎記號と長崎泰益號-近代在日華商の上海交易』 中國書店, 2004, 71쪽).
- 32) 聯發寶行은 문서 첫 머리에 각각 “茲代辦配天津船運奉”(9번), “茲代辦配樂生船運奉”(9번과 12번) 로 되어 있어, 위탁 구매하여 각각 天津船와 樂生船로 부친다는 뜻인데 추론상으로는 天津에 聯發寶行이 있어야 하지만 확인할 수 없었다.
- 33) 그러나 일본과의 교역이 완전히 없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우선 『同順泰寶號記』가 중국과의 거래만을 따로 모아 둔 장부일 가능성도 있고, 1900년대 초 『皇城新聞』 등의 동순태 광고에는 洋貨뿐 아니라, 일본 麒麟맥주 등의 日貨도 다수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II. 廣東네트워크의 정치적 성격과 구성 원리

1. 上海 廣肇幫과 朝鮮

그렇다면 동순태의 최대 거래처이자 사실상 동순태 교역의 대부분을 담당한 上海 同泰號는 어떤 상점이었을까? 동순태문서에 등장하는 同泰號의 주인 梁綸卿(梁應縮)은 上海의 대표적인 광둥 화상이었다. 梁綸卿은 廣東省 高要縣 籍貫으로, 上海의 광둥동향조직인 廣肇公所의 董事(이사)를 오랫동안 역임했다. 이 뿐만 아니다. 梁綸卿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사실은 輪船招商局의 買辦이자 『盛世危言』, 『易言』 등의 저서로 유명한 개혁사상가 鄭觀應(1842-1922)과 교분이 깊었다는 사실이다.³⁴⁾

鄭觀應은 廣東省 香山縣 사람으로 17세에 上海로 와서, 미국 덴트사(Dent & Co. 寶順洋行)의 하위직 매판으로 일하고 있었다. 1868년 27세 때 그는 영국 선교사가 세운 英華書館에서 영어를 배우는데, 이때 동문수학한 친구가 다름 아닌 梁綸卿이었다.³⁵⁾ 후에도 두 사람의 교분은 계속되었던 것 같다. 1907년에 출간된 『盛世危言後編』에는 「答梁道友重刊<海山奇遇>序」, 「致梁綸卿道友書」 등의 글이 수록되어 있어 두 사람의 친밀한 관계를 짐작케 해 준다. 정관응의 집안에는 매판이 특히 많았다. 그의 숙부 鄭廷江은 上海 오버웨그사(Overwer & Co. 新德洋行)의 매판, 친척 曾寄圃는 덴트사의 매판이었으며, 청말 대표적인 매판인 徐潤과는 집안 대대로 친분이 있었다. 이들 모두는 廣東省 香山縣 출신이다.

특히 朝鮮 問題와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唐廷樞(唐景星,

34) 《上海對外經濟貿易志》 編纂委員會, 2001 『上海對外經濟貿易志14-貿易促進』 上海社會科學出版社.

35) 夏東元, 1995 『鄭觀應』, 廣東人民出版社, 6쪽.

1832-1892)는 정관응의 근친으로 두 사람은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 唐 역시 광둥성 향산현 출신이다. 당정추는 怡和洋行(Jardin & Matheson Co.)의 매관을 역임하고 李鴻章의 신임을 받아 輪船招商局總辦으로 있으면서 조선의 개항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람이다.³⁶⁾ 조선 문제를 좌우했던 淸朝 洋務派와 친밀했던 당정추는 陳樹棠이 總辦朝鮮常務委員으로 임명되고, 馬建忠으로 하여금 뮐렌도르프 밑에 일할 중국인 해관직원으로 唐紹儀를 발탁하는데 영향력을 발휘했다.³⁷⁾ 진수당은 광둥성 향산현으로 그와 동향이었으며 당정추의 조선행을 수행했었다. 唐紹儀는 동향일뿐 아니라 당정추와 叔姪의 관계에 있었다. 훗날 중화민국 초대총리가 된 唐紹儀(1860-1938)는 袁世凱의 신임을 받으며 청일전쟁 후에도 朝鮮總領事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처럼 조선 문제에 깊이 관여했던 당정추와 정관응의 관계가 남달랐다는 것은 정관응이 1883년 당정추의 가장 화려한 이력이자 조선과의 관계에서도 핵심이었던 雲南總督을 계승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³⁸⁾

梁綸卿이 정관응과 막역지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동문수학한 친구였다는 점 뿐 아니라, 두 사람의 출신인 광둥성 香山縣과 高要縣은 모두 廣肇幫으로 같은 동향공동체에 속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다. 여기에 또 한 명의 주목할 만한 인물이 있다. 양운경은 1902년 상해 최초의 상회조직인 上海商業公議公所가 조직되었을 때 72명의 회원 중 한 사람이었다. 당시 公所를 이끄는 다섯 명의 總董 중 한 사람은 唐傑臣(唐榮俊, 1862-1904)으로 광둥성 향산현 출신이었고, 상해 廣肇幫 동향회관인 廣肇公所의 總董를 맡고 있었다. 그는 당정추의 친형인 唐廷植의 장자였다. 그는 삼촌이

36) 라센은 그를 중국의 對조선정책에서 경제적 기회의 확대라는 비공식적 제국주의(informal imperialism)를 상징하는 인물로 평가했다(Kirk Larsen, *ibid*, pp.5-6).

37) 岡本隆司, 2004 『屬國と自主のあいだ』名古屋大學出版會, 132쪽, 427쪽.

38) 이화승, 2002 『19세기 상해의 경제개혁사상, 상전 -정관응 사상의 배경과 전개-』 『현대중국연구』 4-2, 2002, 161-163쪽, 176쪽.

었던 당정추, 부친인 당정식을 이어 이화양행 總買辦을 맡고 있었다. 唐傑臣과 梁綸卿은 모두 廣肇公所의 지도적 인물로 오랫동안 함께 일했다. 1899년 廣肇會館의 重修에 임해 쓰여진 『上海廣肇會館序』에 나오는 11명 대표에도 당걸신과 양윤경의 이름이 등장한다. 상해의 廣肇幫(혹은 廣幫)은 상해 客幫 중 최대 세력을 형성하는데, 民國 시기에까지도 上海總商會의 廣東籍 會董은 거의 廣肇商人이 독점했다고 한다.³⁹⁾ 梁과 唐은 동향집단인 上海 廣肇幫의 리더로서, 上海商業公議公所의 핵심인물로 친밀한 관계였다는 점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당걸신은 정관옹 이외에도 당정추 및 조선의 광동성 향산현 출신의 정치엘리트들과 양윤경, 동순태를 연결시켜주는 고리이다. 특히 당걸신은 조선총영사를 지낸 당소의와도 특별한 관계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집안으로도 두 사람은 친인척이었지만, 두 사람은 모두 “幼童留美” 즉 중국 최초의 관비유학생프로그램에 선발되어 渡美한 경력이 있다. 역시 광동성 향산현 출신의 容宏이 주도한 이 프로그램은 1872년부터 1875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매년 30명씩 어린 소년들을 선발하여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다. 이 중 제4차 유학생에는 양무관원과 상인 자체가 대거 포함되어 있었는데 광동적 상인들의 자체가 단연 많았다. 당걸신은 바로 이 제4차 유학생 출신이다. 한 살 위인 당소의은 1874년의 제3차 유학생으로 渡美했었다. 당소의와 함께 조선 해관에 부임한 周壽臣(1861-1959) 역시 제3차 留美兒童 출신으로 당소의와는 콜럼비아대학 동기이기도 하다. 마찬가지로 광동인이다.⁴⁰⁾ 그는

39) 劉正剛, 2004 清代以來廣東文化在內地傳播探析 『廣東社會科學』 5, 103쪽 ; 劉正剛, 2006 『廣東會館論稿』 上海古籍出版社, 100쪽.

40) 周壽臣의 原籍은 廣東省 新安縣(寶安, 현 深圳)이고 출생지는 香港이다. 朝鮮에서의 직무를 마친 뒤 1903년에 天津輪船招商局總辦으로 임명되었다. 이후에도 여러 洋務企業의 總辦을 역임하다가, 辛亥革命 이후는 香港으로 가 東亞銀行을 창립하고 실업활동에 전념하였다. 香港衛生局 및 立法局 議員을 역임하였다. 香港정부에서 최초의 중국인 행정의원으로 활동하는 한편 기사 작위를 수여받았다(鄭宏泰, 周振威, 2006 『香港大老周壽臣』 香港, 三聯書店). 唐紹儀보다 1년 앞서 제2차

1894년 朝鮮仁川領事로 임명되었다. “幼童留美”로 파견된 유학생은 모두 120명이었는데, 이중 84명이 광동성, 그 중 40명이 향산현 직관이었다.⁴¹⁾

이처럼 양윤경과 광동성 향산현 출신 官商엘리트들과의 남다른 관계를 통해 보면, 1892년 同順泰 借款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 130만량이나 되는 內·外債에 시달리던 조선은 중국의 속박에서 벗어나려 미국 일본의 차관을 모색하였다.⁴²⁾ 그러나 중국의 적극적인 방해공작으로 실패로 돌아가고, 결국 1887년 독일 상인 世昌洋行(Meyer 상사, 1883년 인천 개설)으로부터 구입한 蒼龍號 船債 원리금 상환을 위해 중국 정부로부터 10만량의 차관을 하게 된다. 이 때 중국정부로부터 직접 차관을 꺼리던 조선 정부를 고려해, 실제로는 상해 중국해관의 出使經費項目(외국에 주재하는 청 외교관의 경비)에서 차관을 제공하면서 조선거류의 화교자본인 동순태가 명의를 제공하게 된다. 이것이 이른바 동순태 제1차 차관으로, 1892년 8월 19일 체결되었다. 이후 42일 만인 10월 6일에 일본 제일은행의 이자 및 인천 미국상인 타운센드(Townsend)의 船債 14만 여원의 채불 청산을 위해, 다시 10만량의 제2차 차관 조약을 맺게 된다. 두

유학생으로 파견되었던 唐國安(1858-1913)은 唐紹儀와 마찬가지로 唐廷樞의 族侄로 후에 清華大學 창설에 담당하였다(牟翔, 2002 『清華大學第一任校長-唐國安』 『廣東史志』 2002年 第2期, 60쪽).

41) 林輝鋒, 2004 「旅滬廣幫與首次官派幼童留美」 『集美大學學報』 7-4, 110쪽. 留美兒童에 광동성 향산현 출신이 많은 이유는 당정주와 용핑이 모리슨학교(중문명: 塢禮遜學校) 동문이기 때문이다. 선교사 모리슨(Robert Morrison)이 세운 이 학교는 1836년 마카오에 문을 연 최초의 서양식 학교로 1842년에 홍콩으로 옮겼다(陳小卡, 2002 「基督教在中國現代進程中的影響和作用」 『粵海風』 3, 53쪽). 容宏은 1835년부터 마카오의 이 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하여 1847년 미국 유학길에 오를 수 있었고, 唐廷樞는 아버지가 홍콩의 이 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관계로 1842년부터 공부를 시작하여 1848년에 졸업하였다(歐陽躍峰, 2004 「唐廷樞: 中國第一位近代企業家」 『安徽師範大學學報』 3, 335쪽).

42) 동순태 차관에 대해서는 金正起, 1976 「조선정부의 淸 차관도입(1882-1894)」, 『韓國史論』 3, 453-468쪽; 楊昭全, 孫玉梅, 1991 『朝鮮華僑史』, 中國華僑出版公司, 143-144쪽; 강진아, 2006, 앞의 글, 156-158쪽 참조.

조약의 특색은 먼저 1차 차관에서는 담보로 인천해관수입을 설정하면서, 해관수입에 대해 차관상환 최우선권(제2조)을 설정한 것을 들 수 있다. 제 2차 차관은 먼저 인천해관에서 부산해관으로 관세담보가 확대된 것, 둘째로 인천-한성간의 하천운항권과 한강운선선로 개설권이 차관 대가로 주어졌다.⁴³⁾ 당시 동순태가 재력이 상당한 유력화상이기는 하지만 지극히 정치적인 활동에 일개 화상이 개입하는 과정이 분명히 해명된 것은 아니었다. 게다가 同順泰가 袁世凱와 결탁해 淸의 군함의 도움을 받아 홍삼을 밀수출하여 큰 수익을 올렸다는 점 역시 마찬가지였다.⁴⁴⁾ 이 관계는 향후 더욱 검토가 필요하지만, 梁綸卿과 唐氏 家門과의 관계, 唐紹儀를 전적으로 신임하여 신해혁명 후에도 중화민국 초대총리로 重用했던 袁世凱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일말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

同順泰와 조선주재 관원들과의 돈독한 관계는 『同順泰往復文書』에서 도 산견된다. 1893년 12월에 譚傑生은 袁總憲, 즉 袁世凱의 명을 받은 王初安(11권-10에서는 黃初安)이란 인물에게 소운선 구입을 문의 받고, 고배 상응호에게 배의 구입가를 타진하여, 결국 고배 조선소에서 4월까지 12,000元의 가격으로 배를 건조하고 인천에 와서 14,000元 에 넘기도록 거래를 주선하였다. 이 과정에서 同順泰 漢城本號는 선박구입비로 900元을 냈다. 譚은 梁綸卿에게 돈을 적게 내고 싶어도 “官場”과의 교섭은 실로 어렵고 체면도 있어서 이 정도는 낼 수밖에 없다고 하고, 이걸 기회로 이익을 낼 지도 알 수 없는 노릇이라고 여운을 남기고 있다. 같은 편지에서 譚은 通惠公司의 漢陽號를 30,000元에 팔았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나애자의 연구에 따르면 이 배의 구입비용이 25,000元이었고 당시 영업실적이

43)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同順泰號借款合同』, 1892년(고종 29). 차관 결과 설립된 通惠公司와 同順泰, 漢陽號에 관해서는 나애자, 1998 『韓國近代海運業史研究』 국학자료원에도 분산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44) 金正起, 1976, 앞의 글, 434쪽.

나빠 적자가 쌓여가던 상황에 매각을 한 것이라고 하므로,⁴⁵⁾ 이를 감안하면 가격을 매우 높게 받았다고 할 수 있다. 譚은 “이 배를 팔아치운 것은 정말로 행운으로, 큰 부담을 던 것이다(沽去此船實是萬幸, 及去一大累也)”라고 되뇌었다. 그는 官과의 관계로 인해 개입하고 싶지 않은 사업에도 개입하는 등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많은 특혜를 누리고 있었던 것이다.⁴⁶⁾

이러한 관계로 同順泰는 조선정부와도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보인다. 같은 달에 조선 官원[朝鮮官] 安學柱가 동순태를 찾아와, 조선국왕이 연말에 3萬 匁(=兩)이 필요하다고, 이자를 2.2分으로 쳐 줄테니 官蓼 5,000斤을 正月에 牛莊으로 보내 동순태가 나누어 상해, 홍콩에 대리 판매하자고 제안하였다. 당시 동순태는 한성본호에 1萬 匁 가량의 자금밖에 없으므로 上海의 지원을 요청하면서도, 거래규모가 너무 크고 연말이라 각 상점이 모두 돈이 없다고 거래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梁綸卿에게 타진하였다.⁴⁷⁾ 梁綸卿의 답신은 누락되어 있어 정확한 대답을 알 수 없지만, 이후 연결된 편지에서 이 사업에 관한 언급이 없다는 점, 또 이 시기를 전후하여 동태호의 연말 결산을 위해 동순태가 다량의 금액을 계속 상해로 송금하고 있었다는 점을 볼 때, 이 거래는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례에서도 동순태의 정치적 네트워크가 상당했고, 최종판단은 역시 上海 同泰號의 지시에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순태의 정치적 성격은 청일전쟁 와중에서 더 잘 드러난다. 1894년 6월 초 일본이 파병하여 인천을 점령하고, 청군은 아직 파병을 결정하지 않아 혼란스러웠던 시기 담결생이 양윤경에게 보낸 서한에는 정치적인 언급이 상당히 많다. 그는 일본공사 大鳥가 조선왕에게 상주한 원고를 배

45) 나에자, 앞의 책, 132-133쪽.

46) 譚傑生→陳達生, 11권-10, 1893.12.10; 譚傑生→梁綸卿, 13권-1, 1893.12.26.付.

47) 譚傑生→梁綸卿, 12권-1, 1893.12.10.付

껴 梁에게 보내며, “이 상주문의 대강은 조선을 도와 자주를 하여 중국에 등을 돌리고 일본과 손잡고 脣齒가 되어, 제도를 모두 바꾸고 무관을 파견하여 군사를 훈련시키고, 이로써 부국강병을 구한다는 뜻입니다(此奏稿大意, 扶朝鮮自主, 要違背中國, 與日本聯爲脣齒, 而具更改制度及差武員來教兵, 以求富國強兵之義)”라고 운을 떼고, “조선왕은 어리석고 유약하여(朝王是愚蠢柔懦)”, 중국이 파병한 뒤 죄를 묻을까봐 승낙을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어, “그러므로 이 상주문을 袁總辦[袁世凱]에게 주어 中堂[李鴻章]에게 전보로 아뢰도록 하려 합니다(是以將此奏稿交袁總辦電稟中堂)”([]는 인용자)고 말한 뒤, 지금 파병하여 개전하면 日兵을 물리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편지에서 나타난 담걸생의 행보는 조선을 둘러싼 정국 변화에 기민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청국 관방과도 빈번한 접촉을 하고 있었다. 실제 담걸생의 역할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단편적인 글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으며 그 역할 역시 과장해서 파악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담걸생은 파병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 노력하고 있었다. 한편, 譚傑生은 袁世凱, 唐紹儀, 일본전권대사[日本欽差]에게 적극적으로 상황을 문의하고, 조계지역의 각 국 외교사절 회의의 결과에도 실시간으로 정보를 얻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한성본호 재고품 중 시가 25,000元 가량의 비단을 인천조계지에 있는 창고에 비축하고, 5-6천 元 가량의 린넨 등의 물품은 何錦垣이란 인물에게 부탁하여 해관창고에 비축할 수 있었다. 또 최악의 경우라도 각 국 병사들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다.⁴⁸⁾ 행초서로 써있어 3천 여 쪽의 서한

48) 譚傑生→梁綸卿, 20권-1, 1896.6.5.付; 20권-2, 1896.6.7.付. 편지를 쓴 12일 후 6월 17일(양력 7월 19일) 袁世凱는 귀국하고 6일 뒤 아산만에서 파병군을 실은 청의 함정이 일본군에 케멸 당했다. 同順泰 및 청상들은 袁의 귀국 소식을 접한 뒤 상품을 치우고 철수하기 시작했다(特命全權公使 大鳥→陸奧 外務大臣, 양력 1894년 7월 27일 이후 추정, 『주한일본공사관기록』機密第一四一號, (5) 淸使歸國ニ付英總領事該公館竝ニ人民保護ノ事(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을 전부 해독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나, 향후 『同順泰往復文書』 전체를 해독한다면 韓末 漢淸關係에 관해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상으로 단편적이지만 조선에서 개항초기 광동상인들이 상당한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 네트워크는 조선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홍콩, 廣州, 상해, 일본 각 개항장과 연결되어 있는 광역적인 것이었다. 개항 후 廣東商人集團은 대규모로 해외로 세력을 확장해 나가 하나의 강대한 경제적 세력을 형성했다. 林輝鋒은 “旅滬廣幫”이야말로 그 전형적인 예라고 보았다. 그는 “旅滬廣幫”을 淸末 民國初이라는 특정한 역사적 시기에 廣肇公所를 핵심으로 上海에 거류하고 있던 상인들을 주체로 한 廣州, 肇慶 籍貫 이민자들의 비교적 느슨한 공동체라고 규정하였다. 1853년에 상해에 거류하고 있는 광동 인구는 8만 명에 달했다고 한다.⁴⁹⁾ 그는 “洋務派가 세운 가장 대표적인 기업들은 唐廷樞, 鄭觀應, 徐潤 및 그들 배후의 수많은 廣幫 股東(동업자, 주주)과 긴밀한 관계가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한말 淸韓關係를 연구한 岡本隆司는 당정추가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광동인 세력으로 조선 “洋務”의 실권을 장악하려고 했다고 평가했는데,⁵⁰⁾ 同順泰는 그 말단에서 정치적 자양분을 취하여 성장했다고 볼 수 있다.

49) 정식 등록인구로는 1885년에 21,013, 1905년에는 5,4559명으로 상해에 거류하고 있는 타성 인구 중 15-20%를 접하였는데, 이 수는 광동인 활동이 가장 왕성한 서양인주택지, 공장, 소농가, 선상 노동자 등을 포함하지 않은 수이므로 실제 거류자 수는 등록수보다 훨씬 많았다(劉正剛, 2006 『廣東會館論稿』 上海古籍出版社, 80-81쪽).

50) 岡本隆司, 앞의 책, 131-132쪽.

2. 廣東네트워크의 구성 원리 : 가족, 동향에서 동업자로

앞에서 梁綸卿을 실마리로 朝鮮의 광동네트워크가 가지는 정치적 성격을 거시적으로 살펴보았다면, 여기에서는 광동네트워크의 보다 보편적인 구성 원리를 성원 내부에서 미시적으로 살펴보겠다. 먼저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인 同順泰 譚傑生과 梁綸卿과의 관계에 대해 가능한 범위에서 재구성을 해보자.

우선 두 사람의 鄉里 廣東省 高要縣에 대해 살펴보겠다. 1993년 고요현의 인구조사에 따르면 모두 232개 성씨가 있는데, 최대 성씨가 梁氏였고, 譚氏 역시 인구 오천 명 이상의 大姓으로 21번째로 큰 씨족이다.⁵¹⁾ 梁綸卿이 高要縣 어느 村 출신인지는 아직 밝히지 못했으나, 譚傑生의 고향은 高要縣 金利村이었다. 현재 지명은 金利鎮인데 인구 58,700명으로 대부분이 농업인구이다. 특이하게 홍콩, 마카오, 대만 화교가 9600명, 해외화교가 2300명으로 대단히 많다.⁵²⁾ 상당한 비율이 해외로 진출해 있었던 것이다.

清末에는 高要縣志가 편찬되지 않았으므로, 가장 시대가 가까운 고요현지는 1947년에 출판된 『高要縣志』이다. 『高要縣志』를 참고해 보면, 高要縣의 본을 달리하는 譚氏는 모두 20개 종족이 있었다. 이중 金利村에 주로 포진하고 있었던 씨족은 茅岡 譚氏와 그 支派였던 것으로 보인다. 茅岡 譚氏는 시조가 肇慶府城에서 范州都 茅岡村으로 옮겨와 1947년에 이르면 24대 丁口가 680인에 달했다. 茅岡村에서 다시 옮겨간 지파로 古球系(丁口 70), 南邊社(120), 東壩系(180), 西壩系(100), 穀基系(240), 大播系(90), 垠心係(130), 蟠龍系(50), 盤古系(50), 新僑係(50) 10개 그룹이 있는

51) 高要縣地方志編纂委員會, 1996 『高要縣志』 廣東人民出版社, 143쪽.

52) 高要縣地方志編纂委員會, 1996 『高要縣志』 廣東人民出版社, 89쪽.

데 이들을 다 합하면 1,770여 명에 달한다. 고요현의 譚氏 중 가장 수가 많다.⁵³⁾ 民國期の 『高要縣志』의 氏族卷은 모두 옛 지명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 金利村이란 地名을 직접 찾을 수는 없었다.⁵⁴⁾ 그 실마리로 현재 행정구역인 金利鎮은 하위 28개 관리구로 나뉘어 있는데, 이 중 茅崗, 東壩, 西壩, 蟠龍, 金利라는 지명이 있다.⁵⁵⁾ 다른 譚氏의 분포 지역에 金利와 관련된 지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 金利村에 거주했던 譚氏의 다수가 茅岡 譚氏인데, 譚傑生 역시 茅岡 譚氏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는 아직까지는 추정에 불과하지만 高要縣 金利 지역에 譚氏宗族이 상당한 수였던 것은 틀림없다고 하겠다.

1947년에도 高要縣 출신은 타지로 진출한 인구가 상당히 많았다. 같은 시기 홍콩에 고요현 출신은 3천여 명이나 되었고, 이들은 주로 공상업 특히 최대가 洋貨行이었다.⁵⁶⁾ 上海 역시 적지 않았을 것이다. 앞서 上海 商業公議公所의 다섯 명의 總董 중에는 唐傑臣 이외에 한 명의 廣東籍 총동이 더 있었다. 그는 永泰源茶棧과 南洋籌捐彩票局總辦을 맡고 있던 梁鈺堂(梁榮翰)으로 역시 廣東 高要縣 출신이었다.⁵⁷⁾ 同順泰의 사업이 청

53) 梁贊榮, 1947 『中華民國高要縣志初編』(臺北, 金山印刷公司, 1973重印), 242-244쪽.

54) 清末 金利村이란 지명은 없으며, 金利墟라는 지명은 있지만 공식 행정구역은 아니었다. 清末 高要縣은 전체 5개 班 9개 區로 나뉘어져, 현 金利라는 지역은 5班 8區에 해당하고, 소속 都堡로 金溪約, 東約, 中約, 清平約, 西約이 있었다.(高要縣 地方志編纂委員會, 1996 『高要縣志』 廣東人民出版社, 17쪽, 72쪽). 따라서 譚傑生의 籍貫에서 말한 金利村은 金利墟만을 가리킨다기보다는 金利墟를 중심으로 한 주위의 金利라고 칭한 지역, 즉 현재의 金利鎮 전체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5) 高要縣地方志編纂委員會, 1996, 위의 책, 89쪽.

56) 梁贊榮, 앞의 책, 518쪽.

57) 劉正剛, 2006 『廣東會館論稿』 上海古籍出版社, 84쪽. 필자는 이미 『皇城新聞』의 광고를 이용해 동순태의 중국 복권 판매업에 초보적으로 소개하고 동순태의 이 사업을 무역업의 운영 루트를 통해 정기적인 입수와 정보 유통가 가능함으로서 복권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었다고 평가한 바 있다. 한편 高要縣 출신인 梁鈺堂이 南洋籌捐彩票局總辦이었다는 점은 이와 관련하여 주목을 끄는데, 『皇城新聞』의 광고에서 다른 화상은 취급하지 않던 南洋票가 『同順泰寶號記』의 발송장에 들어

일전쟁 이후 점차 다각화하면서, 수출입업에서 취급 화물도 비단, 약재와 같은 전통적인 품목에서 서양가구, 피아노, 망원경, 진축, 유리 등 洋貨로 다양화하는 것을 보면, 洋貨行이 많았던 高要縣 출신의 상업네트워크가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高要縣 전체에서 梁氏가 최대 성씨였으므로 金利村에도 梁氏가 많았지만 梁綸卿 역시 金利村 출신이라는 증거는 아직 없다.

同順泰와 규장각 자료에 대해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한 石川는 梁綸卿이 譚傑生을 內弟(처남), 譚象喬를 內侄(처조카)로 부른 지칭한 편지를 근거로 同泰號는 同順泰의 주주였을 뿐 아니라, 梁綸卿과 譚傑生 一族이 姻戚關係에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⁵⁸⁾ 『同順泰往復文書』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실증해 주는 자료들을 산견할 수 있다.

정일전쟁 도입기인 1894년 5월에 譚傑生은 梁綸卿에게 보낸 편지에서 5월 18일에 家兄 譚晴湖 가족과 자신의 가족, 조카 譚挺昌 등을 윤선초상국의 정기선인 鎮東船으로 上海에 보냈다고 말했다.⁵⁹⁾ 그는 상해로 보내서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는데 어린 아이를 돌보기가 어려울듯하여 일찍 미리 보낸 것이라고 했는데, 아마 부인이 출산이 임박하여 상해로 보낸 듯 하다.⁶⁰⁾ 이후 1894년 7월 경에 담걸생 역시 烟台를 거쳐 다시 上海로 간 뒤 8월 중순까지 있었다. 그는 上海에서 梁綸卿과 마침 상해로 와 있던 神戶 祥隆號의 陳達生을 만나고 상황을 봐서 다시 인천으로 오기 위해

있기 때문이다. 梁鈺堂의 존재는 1902년 경부터 동순태가 복권 사업에 뛰어 들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수 있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별고에서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58) 石川亮太, 2004, 앞의 글, 148-149쪽.

59) 일본측 자료에는 烟台로 갔다고 하므로(在仁川 二等領事 能勢辰五郎→在京城 特命全權公使 大鳥圭介, 양력 1894년 6월 20일(음력 5월 18일), 『주한일본공사관기록』 京第三七號, (32) 探報書(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烟台를 들려서 上海로 갔을 것이다.

60) 譚傑生→梁綸卿, 20권-1, 1894.6.5.付.

8월 23일에 烟台로 갔다.⁶¹⁾ 여기에서 인천으로 가는 배편을 못 구해서 한 달여를 소진한 뒤 9월 24일에 英國 兵船에 승선하여 연태를 떠나 26일에 인천에 도착하고 있다. 연태에 발이 묶여 있는 기간에 양윤경과 주고받은 편지에는 가족 관련된 내용이 많다. 9월에 譚은 상해의 가족을 다시 데리고 오고 싶다고 하며 방금 얻은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배를 타도 괜찮을 지를 묻고 있다.⁶²⁾ 아기는 8월에 태어났는데, 梁은 배를 타도 괜찮을 것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10월 초에 고향으로 갈 예정으로 “細姪(어린 처남댁)”과 각 “甥(생질)”을 모두 데리고 갈 것이며, “너의 누이[汝細姐]”도 동행한다고 답신하였다.⁶³⁾ 여기에서 “누이”에 관한 언급이 처음 나오는데, “처남댁”과 “생질”이 정확하게 누구를 뜻하는지는 애매하지만, 편지의 내용상 답결생은 가족의 일원으로 양윤경의 처남이 확실한 것 같다. 또 앞서 9월 11일에 “北圍放榜”, 즉 北京 順天貢院에 시험성적이 발표되어 汝煊이라는 인물이 順天鄉試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梁綸卿은 이 소식을 여러 차례나 편지에 쓰면서 榜名은 炳光이고 150등이라고 답결생에게 전했다. 문맥으로 보아 汝煊은 梁綸卿의 자제나 근친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갑작스러운 향리행 역시 사실 이 향시합격으로 결정된 것 같다. 답결생이 답신에서 양윤경을 경하하면서 이는 형만의 기쁨이 아니라 모든 일족이 빛을 볼 수 있는 경사라고 언급한 점 역시 인척관계임을 나타낸다.⁶⁴⁾ 또 다른 편지에서 梁은 광동성 고향으로 대신 120匁을 송금

61) 譚傑生 頓→陳達生, 20권-3, 1894.10.1.泐. 진달생은 8월 21일 상해를 떠나, 8월 26일 고베에 도착했다.

62) 譚傑生→梁綸卿, 21권-1, 1894.9.16.付.

63) 梁綸卿→譚傑生, 7권-8, 1894.9.21.付.

64) 1894년에는 鄉試와 會試가 모두 있었으나, 회시합격자 명단에 이 이름이 없으므로 향시로 보아야 할 것이다. 梁綸卿→譚傑生, 7권-5, 1894.9.12.付; 梁綸卿→譚傑生, 7권-6, 1894.9.15; 譚傑生→梁綸卿, 21권-1, 1894.9.16. 원래 향리로 가서 正初에나 上海로 돌아올 예정이었으나 후에 전쟁으로 인한 급무 처리로 계속 향리행을 미루었다.

했는데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안을 언급하면서 청호에게 대신 돈을 수급하도록 하라고 譚에게 시키고 있다. 이를 볼 때도 양, 담 등은 인척관계에 더해 동향관계로 얽혀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⁶⁵⁾

두 사람은 동향관계와 인척관계로 출발하여, 사업상에서는 “伴”의 관계에 놓여 있었다. 『同順泰往復文書』에는 “友”와 “伴”이란 말이 계속 등장한다. “伴”은 伙伴, 즉 사업참여자, 동업자를 의미하는 말로, 祥隆號의 인물들을 祥隆伴, 동순태 인천지점의 인물들에 대해서는 仁伴 등으로 구체적으로 지칭하기도 하고, 일반명사로도 자주 쓰인다. 예를 들어 譚傑生이 아직 烟台에 발이 묶여 있을 때 梁綸卿은 동순태 인천지점을 책임지고 있던 譚廷賡에게 보낸 편지에서, “祥隆號는 계속 직원을 고베에 남겨두고 있고, 陳達生兄 역시 지난달에 고베로 돌아갔으므로 만약 고베에 일이 있으면 그에게 부탁하면 된다. 長崎 萬昌和도 직원을 나가사키에 계속 남겨두고 있고, 潘達初兄은 아직 고향[즉 廣東-인용자]에 돌아가지 않았으므로, 만약에 화물을 부탁해서 [上海로-인용자] 전송하는 일 등은 그에게 부탁하면 된다. 요코하마 福和號도 개항장[즉 요코하마-인용자]을 떠나지 않았으므로 모든 일은 평상시와 같이 처리해라(祥隆仍有伴在神戸, 陳達生兄昨日亦回神戸, 如有事于神戸, 祈照托他可也. 長崎萬昌和仍有伴在崎, 潘達初兄未返里, 如有托轉付貨等事, 祈照托他亦可. 橫濱福和亦不離埠, 各事照常○辦理)[○는 미해독 글자]”라고 말하고 있다.⁶⁶⁾ 일반적으로 직원으로 번역하지만, 한국어의 직원과 달리 파트너십(partner-ship)을 전제로 한 용어이다.

화상 네트워크의 참여자들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전통적인 合股制度를 알아야 한다. 합고(혹은 合夥라고도 함)란 복수의 동업자들(즉 股東)이 지분[股分]을 가지고 사업에 공동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65) 梁綸卿→譚傑生, 7권-7, 1894.9.??付.

66) 梁綸卿→譚廷賡, 6권-11, 1894.9.10付.

하지만 주식과 달리 직원으로 일하는 노동 제공 역시 참여지분인 고분으로 계산하는 점이 다르다. 직원으로서 사업에서 수완을 발휘하여 기여도가 높으면 고분 역시 커진다. 일개 점원에서 출발하여 經理, 즉 경영책임자로 승진하기도 한다. 따라서 伴은 직원이기도 하지만, 사업 참여자이기도 한 것이다. 영업에 대한 책임 역시 고분에 따라서 지는데, 연말에는 이윤[紅利]을 보유 고분대로 계산하여 나눠주고, 도산할 경우 채무 역시 고분대로 부담하여 청산한다. 따라서 유한책임의 주식제도와는 다르다. 특히 山西票號 등 규모가 큰 네트워크성의 상업조직은 각 지점에 경영능력이 뛰어난 경영자 經理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고, 자금주들의 지지를 받는 經理가 조직 전체를 장악하는 사례도 있다. 經理 역시 영업능력에 따른 股分을 소유하여 股東의 일원이었다.⁶⁷⁾

즉 조선의 同順泰는 上海 同泰號가 동아시아 각 개항장에 가지고 있는 “伴” 네트워크의 一員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네트워크는 단순한 거래처의 망이 아니라 자본의 공동투자자로 얽혀있을 가능성이 있다. 동순태와 그 사업을 이해하는데 合股型式이 유용하다는 것은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증명된다. 앞에서 나왔던 通惠公司는 同順泰 사업 중 규모가 큰 것이었다. 通惠公司의 표면적인 투자액으로는 청 정부를 제외하고 同順泰와 怡生號가 최대를 차지하고 있지만,⁶⁸⁾ 사실상 이 자금은 上海 廣肇幫 상인들의 공동 투자였을 것이다. 『同泰來信』의 인천 怡生號가 譚傑生에게 보낸 서신에는 上海의 唐袁興翁이 通惠公司 주식을 처분하고 싶으니 지분증서 [股份票]는 부쳐주고 대금은 상해 동태호에서 받고 싶다는 뜻을 전하고 있다.⁶⁹⁾ 이를 통해 본다면, 통혜공사 역시 合股의 형식을 통해 공동투자

67) 合股와 合夥의 개념과 형태에 관해서는 정지호, 2001 『명청시대(明清時代) 합과의 경영형태 및 그 특질 - 중국의 전통적 기업경영에 관한 일고찰』 『명청사연구』 15, 148-150쪽 참조. 자본출자에 대비되는 직원의 노력출자, 즉 身股에 관해서는 정지호, 2006 『명청시대 合夥의 사회적 고찰』 『명청사연구』 26, 355쪽 참조.
68) 나애자, 앞의 책, 132-133쪽.

형태로 자금을 모집하였고, 자금모집책이 怡生號와 同順泰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미 이 전에 1893년 12월에 소속 漢陽號를 매각할 때에도 合股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譚傑生은 매각 대금 중 먼저 받은 1萬元을 上海로 송금하여, 1股에 42元으로 계산하여 上海의 “股友”, 즉 股東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고, 회사의 채무 수천 元은 각 股東이 모여서 의논하여 청산하도록 했다.⁷⁰⁾ 이듬해 6월 초의 편지를 보면 원래 3월까지 나머지 2만 원을 주기로 한 조선정부의 약속이 이뤄지지 않은 모양으로 股東들의 독촉이 있었던 것 같다. 담걸생은 양운경에게 보낸 편지에서, 朝鮮 轉運局에 추궁하여 6월 말까지는 꼭 받기로 했다고 하면서 “만약 받으면 바로 股分에 따라 분배할 것이므로 각 股東들에게 통지하시기 바랍니다(如果得收即按股分派, 祈通知各股友可也)”라고 말하고 있다.⁷¹⁾ 차후 세밀한 검증이 더 필요하지만, 광동상인교역네트워크의 형성에 合股 형식을 통한 자본 공유가 중요한 매개물이었고, 네트워크를 통해 국가의 영역을 뛰어넘는 투자자금의 유희입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合股는 조선 동순대 내부에서도 확인된다. 동순대 인천 지점의 譚廷賡은 烟台에 머물고 있는 담걸생에게 편지를 보내 함께 일하고 있는 松藝라는 인물이 거래를 자신과 상의 없이 좌우하고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고 담걸생에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⁷²⁾ 답신에서 譚傑生은 “같은 형제 친척이고, 또한 모두 같은 동업자이므로, 절대 너와 나를 구분해서 다른 사람에게 우습게 보이지 말고 大局을 보존해야 한다(因手足之親, 且全○一東家, 斷不可分彼此, 免至俾別人看小, 以保存大局可也)”고 말했다.⁷³⁾ 결국

69) 同泰來信』5卷, (仁川怡生號書柬)弟 陳如三→譚傑生, 1894.2.7 “日前弟得接到上海唐袁(?)與翁來書, 云及他通惠公司股份銀[1000]元, 寄股份票來處(?)收銀, 亦是在上海同泰號收銀矣”.

70) 譚傑生→梁綸卿, 13권-1, 1893.12.26. 付.

71) 譚傑生→梁綸卿, 20권-1, 1894.6.5. 付.

72) 譚廷賡→譚傑生, 7권-13, 1894. 9.1 ; 7권-14, 1894. 9.2.

73) 譚傑生 頓→譚廷賡, 21권-2, 1896.9.12. 晚泐.

조선 동순태 내부에서 확장된 동아시아의 “伴” 네트워크까지 밀도에서 家族, 親知, 同鄉으로 외연이 넓어지는 동업자 네트워크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 동업 네트워크에도 위계질서와 독립성이 양존했던 것으로 보인다. 동순태의 경우 해외시장에 다각적 경영을 하고 있지만, 최종판단은 上海 同泰號 梁綸卿의 지시에 거의 따르고 있으며, 담결생은 기본적으로 양윤경의 시장판단에 따라 이른바 朝鮮貨, 中國貨를 조달, 배급하고 있었다. 또 동순태 한성 본호의 물건[漢號貨]을 일본 현지에서 위탁 판매한 橫濱 福和號는 그 대금 2,628元을 한성이 아닌 상해로 송금하고 있다. 북화호와 같은 일본 거래처가 아닌 상점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도 판매 대금은 상해로 보내졌다. 동순태 인천지점의 수출상품을 일본 藤田公司가 판매한 사례가 그것이다. 당시 인천지점은 藤田公司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해 자금 경색 상황이었었는데, 그 경과를 보면 이 거래에 神戶 祥隆號가 중간에 개입되어 있어 藤田側에게 송금을 종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자금 결제 역시 藤田가 대금 17,604元을 인천으로 부치는 것이 아니라 滙豐銀行 電票로 上海 同泰號로 부치는 것으로 완결되고 있다.⁷⁴⁾ 즉 시장판단뿐 아니라 자금회전에서도 上海 同泰號는 조선 동순태에 대해서 상급의 지위에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독립성이 엿보이는 부분도 있다. 譚傑生은 전시에 漢城本號의 재고품을 상해로 다시 가져오라는 梁綸卿의 말에 대해, 장래 재수입할 경우 이중으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며 조선에서 재고를 팔겠다고 결정하기도 하고,⁷⁵⁾ 烟台에서 인천으로 귀국을 준비하면서 인천행 선편 마련이 여의치 않자 상해를 거쳐 “中國貨”를 장만한 뒤 고베로 가서 潮州付船으로 다시 조선에 가겠다고 한 것 역시 그러하다.⁷⁶⁾ 한편 같은 “伴”이라고

74) 梁綸卿→譚傑生, 7권-2, 1894.8.25付; 7권-3, 1894.8.28.付; 7권-4, 1894.9.7.付.

75) 譚傑生→梁綸卿, 20권-2, 1894.6.7.付.

할 지라도, 동태호와 일본 각 호와의 관계는 동순태와는 달랐던 것 같다. 동순태 담걸생은 상해 동태호를 통해 “非行正路之貨” 즉 떳떳하지 못한 화물을 일본에 우송했던 것 같은데, 고베에서 하선 허가를 받지 못하여 고베 祥隆號는 同泰號에게 이 배가 요코하마로 가니 福和號에게 알려서 방법을 마련해 화물을 받도록 하라고 하였다. 양운경은 이 소식을 담걸생에게 말하며 “非行正路之貨”를 “친구에게 대신 처리하도록 하는 것(滙友代辦)”은 실로 불안하다면서, 상용호 진달생의 편지도 기뻐하지 않는 어투였다고 전하고, 폐 끼치지 않는 쉬운 판로를 생각해보라고 충고하였다.⁷⁷⁾ 이로 볼 때 상용호가 일본에서 가장 거래가 빈번하고 가까운 상점이지만, 조선 동순태와는 성격이 달랐다고 볼 수 있다. “伴”과 “友”의 차이, 자본 공유의 의미, 本號와 지점의 관계 등 동순태의 운영원리에 대해서는 아직도 해명을 기다리는 과제가 적지 않다.

맺음말

19세기 말 20세기 초 이른바 근대전환기에 同順泰는 인천을 발판으로 동아시아무역으로 자본을 축적한 대표적인 조선 화상이었다. 동순태와 그 내부 참여자, 국내외 거래처, 협력자들을 이어서 그려지는 네트워크는 모두 廣東籍, 특히 廣肇幫이라는 특수 지역의 동향네트워크가 겹쳐진다. 그 위에 친인척 관계가 겹쳐져 더욱 네트워크는 강고해 질 수 있었다. 한 말 同順泰를 통해 복원한 廣東네트워크는 조선화상의 성격이란 면에서

76) 譚傑生→梁綸卿, 21권-4, 1894.9.21.付.

77) 梁綸卿→譚傑生, 7권-9, 1894.10.1.付.

日本の 福建華商과 福建네트워크와 비교해 뚜렷이 구별되는 여러 가지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의 복건화상은 상업에 정치적인 개입이 들어갈 여지가 적었고 동향조직망 위에 상업적 기회를 찾아 뺏어나가는 것이었다. 하지만 동순태는 한말 개항 특히 청조의 적극적인 대조선정책이 가시화되면서 인천에 상륙했고, 그 성장의 배경이 된 상해 동태호와 그 네트워크는 조선정책을 실질적으로 지도하는 청조 洋務派 관료, 廣東출신의 買辦資本에까지 이어져 있었다.

1842년 南京條約으로 上海가 개항하면서 洋行의 본거지였던 광둥인들은 洋行의 上海 진출과 더불어 부상하였고, 1858년부터 일본의 개항이 본격화되자 역시 양행의 일본 진출과 더불어 광둥인들 역시 일본으로 진출했다. 매관으로 도항한 광둥인들은 이후 동향인들을 끌어들이면서 재빨리 현지 상점을 열고 정착을 시작했던 것이다.⁷⁸⁾ 동아시아유통네트워크에서 광둥네트워크의 형성은 서구세력의 아시아 개항 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조선의 경우는 청조의 대조선정책이 양무과관료와 그와 손잡은 광둥출신 매관들에 의해 주도된 결과 조선의 廣東華商은 동아시아광둥네트워크 속에서도 특히 정치적 지원을 향유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官과도 밀착되었다. 그러한 점에서 조선의 광둥네트워크는 일본 복건네트워크와 달리 단순한 화교네트워크가 아니라, 정치적 네트워크이기도 했던 것이다. 라센은 이러한 조선화상의 특질을 지목하여, 중국의 대조선정책은 “비공식적 제국주의(informal imperialism)”로 해석할 수 있으며, 朝鮮華商은 바로 그 정책의 가장 전형적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동순태의 광둥네트워크에서는 이러한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그와 더불어 남겨진 과제는, 그럼에도 동순태가 정치적 배경이 사실상 사라진 20세기에 들어와서도 1920년대까지 성공적으로 자본을 증식하

78) 劉正剛, 2006 『廣東會館論稿』上海古籍出版社, 79쪽; 龔伯洪, 2003 『廣府華僑華人史』廣東高等教育出版社, 165-166쪽.

고 발전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이다. 동순태의 변신과 새로운 토착화, 다각화 전략에 대해서는 줄고에서 이미 초보적으로 검토한 바 있으나, 그 과정에서 상해 동태호로부터의 자립, 혹은 관계 변화 역시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동순태연구는 연구가 막 시작된 단계에 불과하지만 동아시아 네트워크론에서 존재감이 적었던 조선을 제대로 파악하는데 돌파구를 제공할 수 있다. 향후 동순태문서에 대한 한, 중, 일 학자들의 다양한 시각에서의 검토가 이뤄져 동아시아네트워크 속에서 인천, 조선화상에 대해 재조명할 수 있기 바란다.

참고문헌

- 편자 미상, 『同順泰往復文書』(35책), 1893년-1907년,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 소장.
- 편자 미상, 『同順泰寶號記』(1책), 1907년,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 소장.
-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朝鮮)編 『同順泰號借款合同』(1책), 1893년, 규장각 소장,
-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朝鮮)編 『同順泰第貳借銀按償收據』(1책), 1892-1893년, 규장각 소장.
-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編, 1972 『清季中日韓關係史料』 第4卷, 臺灣中央研究院.
- 梁贊燊, 1947 『中華民國高要縣志初編』(臺北, 金山印刷公司, 1973重印).
- 相澤仁助, 1905 『韓國二大港實勢』日韓昌文社(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문화예술과 역사자료관 역사문화연구실 역, 2006 『譯註 韓國二大港實勢』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 朝鮮總督府警務局保安課 「支那人引揚關係」 『治安狀況』 第27報, 1937년9월17일 발행본.
- 朝鮮總督府, 1924 『朝鮮における支那人』.
- 在仁川 二等領事 能勢辰五郎→在京城 特命全權公使 大鳥圭介, 1894년 6월 20일, 『주한일본공사관기록』 京第三七號, (32) 探報書(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강진아, 2004 「근대 동아시아의 초국적 자본의 성장과 한계 -재한화교기업 동순태(同順泰)(1874?-1937)의 사례-」 『경북사학』 27(강진아, 2006 「근대 동아시아의 초국적 자본의 성장과 한계-재한화교기업 同順泰(1874?-1937)의 사례-」 『근대전환기 동아시아 삼국과 한국

- 근대인식과 정책-』성균관대학교 출판부에 轉載).
- 강진아, 2007 「이주와 유통으로 본 근현대 동아시아 경제사」 『역사비평』 여름호.
- 강진아, 2007 「동아시아경제사 연구의 미답지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 소장 朝鮮華商 同順泰號關係文書」 『동양사학연구』 100.
- 김영신, 2005 「日帝時期 在韓華僑(1910-1931)-仁川地域 華僑를 중심으로」 『인천학연구』 4.
- 김영신, 2003 「개항기(1883-1910) 인천항의 대외교역과 화교의 역할」 『인천학연구』 2-1.
- 譚永盛, 1976 「조선말기의 청국상인에 관한 연구-1882년부터 1885년까지」 단국대학교 사학과 석사논문.
- 이화승, 2002 「19세기 상해의 경제개혁사상, 상전 -정관응 사상의 배경과 전개-」 『현대중국연구』 4-2, 2002.
- 정지호, 2001 「명청시대 (明清時代) 합과의 경영형태 및 그 특질 - 중국의 전통적 기업경영에 관한 일고찰」 『명청사연구』 15.
- 정지호, 2006 「明清時代 合夥의 사회적 고찰」 『명청사연구』 26.
- 하세봉, 2000 「“동아시아 교역권”론의 지평 확대」 『중국근현대사연구』 10.
- 陳小卡, 2002 「基督教在中國現代進程中的影響和作用」 『粵海風』 3.
- 高偉濃, 1988 「中朝通商初年到朝鮮的粵商」 『廣東史志』 1988年 第2期
- 高要縣地方志編纂委員會, 1996 『高要縣志』 廣東人民出版社.
- 龔伯洪, 2003 『廣府華僑華人史』 廣東高等教育出版社.
- 林輝鋒, 2004 「旅滬廣幫與首次官派幼童留美」 『集美大學學報』 7-4.
- 劉正剛, 2004 「清代以來廣東文化在內地傳播探析」 『廣東社會科學』 5.
- 劉正剛, 2006 『廣東會館論稿』 上海古籍出版社.

- 牟翔, 2002 「清華大學第一任校長-唐國安」 『廣東史志』 2002年 第2期.
- 歐陽躍峰, 2004 「唐廷樞: 中國第一位近代企業家」 『安徽師範大學學報』 3.
- 《上海對外經濟貿易志》編纂委員會, 2001 『上海對外經濟貿易志14-貿易促進』 上海社會科學出版社.
- 尙耀, 2006 「老字號“雷允上”今昔」 『中國藥業』 5.
- 夏東元, 1995 『鄭觀應』, 廣東人民出版社.
- 楊昭全, 孫玉梅 著, 1991 『朝鮮華僑史』, 中國華僑出版公司.
- 鄭宏泰, 周振威, 2006 『香港大老周壽臣』 香港, 三聯書店.
- 石川亮太, 2000 「19世紀末東アジアにおける國際流通構造と朝鮮一海産物の生産・流通から一」 『史學雜誌』 109-2.
- 石川亮太, 2004 「ソウル大學所藏『同泰來信』の性格と成立過程一近代朝鮮華僑研究の端緒として一」 『九州大學東洋史論集』 32.
- 石川亮太, 2004 「開港後朝鮮における華商の貿易活動-1894年の清國米中繼貿易を通じて」 『中國近代化の動態構造』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 石川亮太, 2005 「朝鮮開港後における華商の對上海貿易一同順泰資料を通じて一」 『東洋史研究』 63-4.
- 石川亮太, 2007 「開港期漢城における朝鮮人、中國人間の商取引と紛争一「駐韓使館檔案」を通じて」 『年報朝鮮學』 10.
- 岡本隆司, 2004 『屬國と自主のあいだ』 名古屋大學出版會.
- 籠谷直人, 1990 「1880年代のアジアからの“衝擊”と日本の反応」 『歷史學研究』 608.
- 籠谷直人, 1991 「アジアからの“衝擊”と日本の近代」 『日本史研究』 344.
- 籠谷直人, 2000 『アジア國際通商秩序と近代日本』 名古屋大學出版會.
- 古田和子, 1992 「上海ネットワークの中の神戸」 『年報近代日本研究』 14

古田和子, 1994 「アジアにおける交易交流のネットワーク」 平野健一郎
編, 『地域システムと國際關係』(講座現代アジア 4) 東京大學出版
會.

山岡由佳, 1995 『長崎華商經營の史的硏究—近代中國商人の經營と帳
簿—』ミネルヴァ書房.

廖赤陽, 2000 『長崎華商と東アジア交易網の形成』汲古書院.

和田正廣, 翁其銀共著, 2004 『上海鼎記號と長崎泰益號-近代在日華商の上
海交易』中國書店.

Kirk Wayne Larsen, 2000 “From Suzerainty to Commerce: Sino-Korean
Economic And Business relations during the open port period
1876-1910”, June, Harvard University, Ph. D dissertation.

Abstract

Canton-networks and Overseas Chinese
Merchant *Tongsuntae* in Korea

Kang, Jin-A

This essay investigates trade networks of *Tongsuntae*(同順泰, *Tongshuntai* in Chinese), one of most representative Chinese companies in Korea during the modern transition period. For that purpose, besides *Tongsuntae* documents in *kyujang-gak*奎章閣 collection, this study analyses *Tongsuntae-wangbok-munseo*同順泰往復文書 and *Tongsuntae-bohogi*同順泰寶號記 newly discovered from Ancient Documents Archives in SNU. The internal organization and East-Asian trades of *Tongsuntae* were rooted in family and lineage networks and extending through regional ties. *Tongsuntae* was one of nodes in Canton-networks. *Tongsuntae* made inroads into Korea and developed, with Qing dynasty's increasing political presence in Korea. *Liang Lunqing*梁綸卿, the owner of *Tongtaeho*同泰號, who was most important business partner and could be major stock-holder, *gudong*股東, of *Tongsuntae*, provides a decisive clue for understanding the background of *Tongsuntae*'s success in Korea. He was a leading figure in Cantonese societies of Shanghai and had close relationship with Cantonese compradores(*maiban*, 買辦) and self-strengthening officials(*Yangwupai*, 洋務派). They were performers of Qing policies to Korea and held the great influences in Korean affairs. Qing empire provided official encouragement and support for Chinese commercial ventures

in Korea and *Tongsuntae* can exploit the Cantonese capitals. In this view point, Canton-networks in Korea might be not just overseas Cantonese merchant networks but Cantonese political networks.

Key Words : Tongsuntae, overseas Chinese merchants, East-Asian trade, Shanghai, Canton-network